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etoday.co.kr

제3201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KB증권
BUY KOREA BUY BOND
채권 투자는 KB증권
*투자 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자산가격변동>,<환율변동>,<신용등급하락>등에 따른 원금손실(일부 또는 전액)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발행사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 *AAA/AA·A·BBB 각 +,0,-순으로 투자적격등급 구분

코스피(17일) 2519.85(-5.79P) ▼
코스닥 886.04(+7.75P) ▲
환율(달러당 원화) 1342.00(+5.10원) ▲
금리(국고채 3년물) 3.788%(+0.076%P) ▲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흡수합병 결정 4

수업방해 학생, 2학기부터 '교실 밖' 분리 가능 17

집값 반등에도… '눈치싸움'에 매물 더 쌓였다

완연한 상승세 흐름 못 탄 부동산
매도-매수자, 가격 눈높이 달라
차익실현 심리 확대도 원인 지목

"시세보다 싼 집 매수 검토해 볼 만"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탈 것이란 관측이 확대되고 있지만, 매물은 오히려 더 많이 쌓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완연한 상승 흐름을 타지 못한 상황이라 집을 팔려는 사람과 매수자 간 시각차가 크게 벌어진 게 이유로 꼽힌다.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서둘러 차익을 실현하려는 심리도 매물 증대를 가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아파트 매물은 45만4820건으로 열흘 사이 3.7% 늘었다.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모든 지역에서 매물이 늘었다. 광주가 7.4%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이어 전남(5.9%), 제주(5.2%), 경남(4.6%), 인천(4.1%), 경기(4%) 순이었다. 서울은6만5898건에서6만8449건으로 3.9%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의 지표와 전망이 하락보다 상승 쪽을 지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8월 둘째 주(8월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04% 상승하며 5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13주 연속 상승했다. 전국 '대장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을 보여주는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최근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지속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아직 폭이 크지 않을 뿐이지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가격 지표의 우상향은 이미 상승 흐름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집을 사고팔려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다른 것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에도 매물이 쌓이는 이유로 거론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매도자는 부동산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내놔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매수자는 여전히 가격이 높고, 한 번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원하는 가격이 다르다 보니 계약까지 가지 못해 매물 소진 속도가 느리고 적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매도를 미뤘던 집주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매도자 열위에서 벗어나는 시점이라 제값을 받고 차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게 매물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방 자료를 보면 6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상승거래 비중은 51.9%로, 2021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50%를 넘겼다. 신고가 비중은 올해 1월을 저점으로 상승하면서 지난달 9.81%까지 올랐다.

권 팀장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온 집은 매수를 검토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전보규 기자 jbk@

값싼 주유소 찾아 삼만리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7일 경기 수원시의 한 주유소에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정부는 16일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조현호 기자 hyunho@

금감원 "내부통제 점검 은행장이 직접 나서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규모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은행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은행장들에게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해 종합 점검과 확인 서명까지 지시했다.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관련한 지배구조개선법이 입법 예정이지만,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내부통제 부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22면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등 17개 은행장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부원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당국이 중대 사고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KB국민은행·경남은행·DGB대구은행 등에서 잇따라 비리 행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2면에 계속 김범근 기자 nova@

부산·인천, 블록체인 '묻지마 MOU'

'하루·델리오' 관계사와 협력 불구
양사, 檢수사에 사실상 폐업 수순

블록체인 허브를 표방하는 부산·인천 광역시가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델리오의 관계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 모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어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도 멈췄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부산시는 지난해 5월 4일 델리오에 자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진 블록체인 스타트업 트라움인포테크와 부산 투지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트라움인포테크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으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트레이딩 플랫폼을 제작하는 회사다. 부산시는 당시 15개 블록체인 역외기업과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트라움인포테크는 부산에 지사 설립과 투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8월 현재 트라움인포테크는 검찰 수사를 받으며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트라움인포테크
블록체인 인공 지능 기반 거래 플랫폼 제작 스타트업

2018년	12월	설립
2022년	5월 4일	부산시와 MOU 체결 델리오, 트라움인포테크에 비트코인 수탁 의혹
2023년	8월 4일	합수단, 델리오 서울 강서구 사무실 압수수색

블록크래프터스
블록체인 전문 액셀러레이터 회사

2018년	5월	설립
2023년	5월 29일	인천시와 MOU 체결
	6월 13일	입출금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모회사
	7월 18일	검찰, 서울 강남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과 금융당국 등 7개 기관이 모인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달 4일 델리오의 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트라움인포테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델리오는 트라움인포테크에 대규모 비트코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8면에 계속 안유리 기자 inglass@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G2發 공포에도… 연기금 'AI', 버핏 '건설·은행주' 베팅

국내외 큰손들의 역발상 투자

연기금, 美 팔란티어·MS 매수
KIC, 엔비디아·인텔 등 사들여
아크 인베스트도 팔란티어 편입
버핏, 건설사·은행 10억弗 투자
서학개미 美 장기채·ETF 담아

국민연금 2분기 미국 주식 매수 순위

순위	종목명	업종	매수 규모	매수 금액(추정)
1	팔란티어(PLTR)	AI 소프트웨어 기업	247만1802주	3757만달러
2	카니발(CCL)	크루즈 업체	170만3604주	2923만달러
3	피프스 서드 뱅코프(FITB)	은행	107만5510주	2823만달러
4	애플(AAPL)	IT	89만9752주	4991만달러
5	우버(UBER)	차량공유업체	88만2285주	3166만달러

※ 출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탐욕에 팔고, 공포에 사라."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그는 과거 한 신문 기고에서 대공황 때인 1932년 7월 8일 다우지수가 41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경제 상황은 1933년 3월까지도 계속 나빠졌지만 증시는 30% 상승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경제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지만, 주가는 올랐다는 것이다. 워런 버핏은 "나쁜 소식은 투자자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했다.

'G2(미국·중국)'발 공포가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 미국(경기호전, 금리인상)과 중국(디플레이션)의 엇갈리는 경기 흐름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겹악재로 떠오른 영향이다.

'공포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발상 투자에 나선 이들이 있다.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KIC)·버크셔 해서웨이 등 국내외 큰손들이다.

역사적으로 비춰봤을 때 하락장 속에서 저가 매수한 세력이 결국 나중에 웃었다. 이번에도 '공포에 주식을 사라'는 격언이 맞을지 주목된다.

◇국내 연기금, 美 증시에서 AI '삼매경', '공포'에 산 美 큰손 = 국내 연기금들은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관련주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식 보유현황 보고서(13F)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2분기 팔란티어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 매수 규모는 약 3757만 달러(약 504억 원)로 추정된다. 팔란티어는 대표적인 AI 수혜주로, 생성형 AI인 '챗GPT' 열풍에 힘입어 올해 142% 가까이 오른 종목이다.

국민연금은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등 AI 테마주도 사들였다. 엔비디아는 올해 204% 가까이 오른 종목이다.

KIC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인텔 등 AI 관련주를 다량 매수했다. 매수 규모는 각각 약 4319만 달러(약 579억 원), 7074만 달러(약 949억 원)에 달한다. 특히 엔비디아는 한국투자공사의 미국주식 포트폴리오에서 2.49%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포트폴리오 내 4위 수준이다.

국내 연기금의 투자 양상은 일명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의 매수세와도 유사하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2분기 팔란티어를 처음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서다. 매수 금액만 약 1억490만 달러(1407억 원)에 달하며 2분기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에 올랐다.

워런 버핏은 캐시우드보다도 '공포 전략'을 적극적으로 행했다. 그가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2분기 미국 대형 주택건설사 닥터호턴(약 7억2600만 달러)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 물론 최근 미국 주택시장 위기론이 커지면서 비중을 줄인 이들이 많지만, 버핏은 주택시장 개선을 점치며 닥터호턴에 베팅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 대형은행 캐피털 원 파이낸셜도 약 2억6000만 달러 매수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다. 미국 은행 연쇄 파산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에 매수했다는 점에서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

◇서학개미 시장엔 참여하지만, "공포에 사지 않아" = 회사원 김모(38) 씨는 4월 나스닥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샀다. 나스닥100지수 하락률의 3배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나스닥100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김 씨는 "'공포'에 베팅한다는 월가의 격언은 큰손들에게나 해당하는 얘기다"라며 "기대 수익률만 올리면 바로 청산할 생각"이라고 했다.

실제 서학개미의 선택은 글로벌 큰손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2분기 서학개미는 미국 장기 국채와 나스닥 하락 추종 ETF를 다량 매수했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국채 불 3 X SHS ETF'(TMF)로, 3억4690만 달러 순매수했다. 나스닥100 지수가 하락하면 3배 수익을 얻는 'SQQQ'(2억1255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바이라이트 ETF'(TLTW)(9820만 달러)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채 ETF'(TLT)(7702만 달러) 등 미국 장기 국채 ETF가 인기를 끌었다. 증권가 한 전문가는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잇단 횡령 사고에… 금감원 "은행장 서명한 보고서 제출하라"

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강화

▶1면서 계속

금감원은 이번 주 중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고 이달 31일까지 은행장 확인 서명이 담긴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결과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신속히 개선 및 보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발생 시 금융회사 대표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범위를 구체화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 상정돼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도록 돼 있다. 금융회사가 각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범위를 사전에 나눠 확정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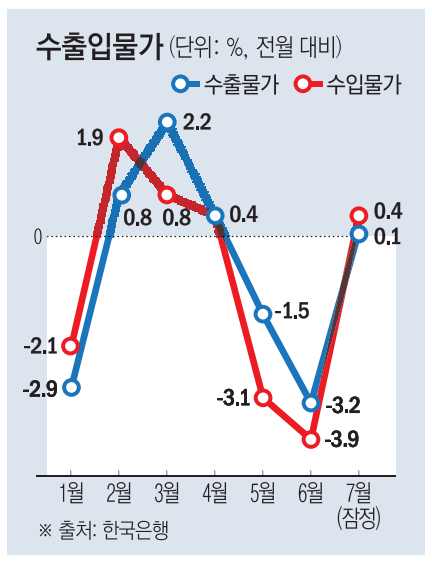
이날 금감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관리 방안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10월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 안되고 유가 오르고… 韓 성장률 전망 또 떨어지나

한은 내주 수정경제전망 발표

반도체·화장품 등 中 침체 직격
성장률 1.4→1.1% 하향 가능성

7월 수입물가 3개월 만에 올라
8~9월께 소비자물가 반영될 듯



한국은행이 24일 연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다.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다음 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물가 전망치를 높일 가능성이 나온다.

미국 금융 리스크와 중국 경제위기 등 글로벌 빅2의 악재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악재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24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연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다. 한은은 5월 25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를 유지했다.

성장률의 경우 기존 1.4%에서 0.1~0.2%포인트(p) 낮출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2년 반 만에 디플레이션에 진입하는 등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성장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7월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14.5%로 코로나 경제 충격이 가장 컸던 2020년 2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중국 경기 회복이 늦어질수록 한국의 주력 대중 수출품인 반도체를 비롯해 화장품 같은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의 수출 전망이 밝아지기 어렵다. 게다가 신용평가사 피치가 JP모건 등 수십 개 미국 대형은행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 금융 리스크도 우리나라 경제에 악재다.

앞서 5월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선진국 금융 불안이 확대되는 경우 올해 성장률이 1.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을 보면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달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망대로 올해 1.4% 성장하려면 3분기와 4분기 각 0.7%가량 성장해 하반기 성장률이 1.7%가 돼야 한다"며 "다음 달에 최근 통계 등을 감안해서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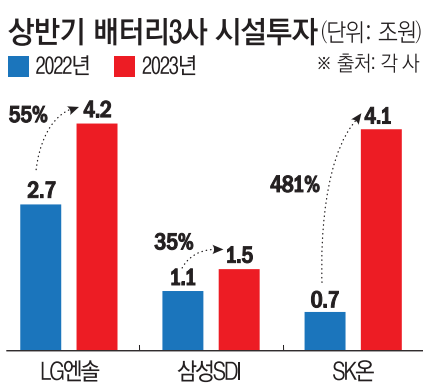
이미 한은 전망치 1.4%보다 낮은 성장률을 제시한 기관은 여러 곳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3%로 3개월 만에 하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1.3%), 하나금융경영연구소(1.3%), 현대경제연구원(1.2%) 등 민간에선 1%대 초반 성장률 전망을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제품 가격은 3개월 만에 상승했다. 지난달 두바이유 가격 평균이 배럴당 80.45달러로 6월(74.99달러) 대비 7.3% 오른 영향이다. 유가가 오르는 것은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브렌트유를 하반기 85달러로 전망했으나 유가가 6월부터 뛰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폭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 유성욱 팀장은 "수입 물가는 대략 1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면서 "8월이나 그다음 달 중 (소비자물가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대를 돌파하는 등 원화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는 점도 수입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록 기자 syr@

배터리 3사 10兆 '닥투'

〈닥치고 투자〉

상반기 설비투자 전년比 115%↑
하반기에도 8조 이상 '공격 투자'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에만 1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투자로 국내외 생산능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17일 각 사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올해 상반기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설비투자에 총 9조7883억 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총 4조5396억 원을 썼던 것과 비교하면 115.62% 급증했다.

배터리 3사 중 설비투자에 가장 많은 금액을 쓴 건 LG에너지솔루션이다. 올해 상반기 생산 시설 신규 건설과 증설 등에 총 4조1742억 원을 사용했다. 전년 동기 대비 54.73% 늘어난 금액이다.

회사 측은 투자금 중 상당 금액이 북미 생산능력 증대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북미에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 혼다, 스텔란티스와 합작공장을 짓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는 총 43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원통형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독자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SK온은 3사 중 설비투자 액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4조781억 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0.76% 급증한 액수다. SK온 역시 상당 금액을 포드와 합작법인 '블루오벌SK'의 공장 건설에 투자했다. 블루오벌SK는 미국 켄터키주에 43GWh 규모 공장 2개, 테네시주에 43GWh 규모 공장 1개를 짓고 있다.

삼성SDI에서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에너지솔루션 부문은 상반기 설비투자에 1조5360억 원을 사용해 전년 동기 대비 34.77% 증가했다.

배터리 3사는 하반기에도 공격적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총 6조2909억 원의 설비투자를 집행한 LG에너지솔루션은 연초에 올해 설비투자 규모를 50% 이상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약 5조 원을 추가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SK온도 올해 7조 원의 설비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약 3조 원을 더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I도 북미에 스텔란티스와 합작공장을 짓고 있고, 말레이시아 원통형 배터리 라인도 증설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가 북미에 짓고 있는 다수의 공장이 양산을 시작하는 시기는 2025~2026년이다. 강문정 기자 kangmj@

‘셀트리온 3형제’ 합친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우선 합병

연내 마무리後 제약 합병 추진
2030년 매출 12조로 늘릴 계획
서정진 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규모 투자… 신약개발 주력”

셀트리온그룹 3사가 본격적인 합병절차에 들어간다. 단계별 합병으로 기업 역량을강화해 글로벌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의 도약을 모색한다.

셀트리온은 17일 공시를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다. 첫 단계로 그룹 내 바이오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합병하고, 이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의 합병을 통해 3사 합병을 완성할 예정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이날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현재 전 세계 제약사들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개발·생산하고 자체 판매할 수 있는 회사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각자의 시너지를 모아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도약하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며 3사 합병 의의를 밝혔다. 이어 “통합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앞으로 자체 신약 개발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17일 온라인 간담회에서 “통합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앞으로 자체 신약 개발에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셀트리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에게 셀트리온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874원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식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식 0.4492620주가 배정된다. 합병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는 10월 2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합병 기일은 12월 28일로,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셀트리온그룹은 합병을 통해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체 사업 사이클을 일원화하고, 원가경쟁력을 개선해 신약과 신규 모달리티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가경쟁력을 강화해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구사하고, 거래 구조를 단순화해 그간 지적됐던 기업의 투명성도 끌어올린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0년 처음 공개된 3사 합병 계획은 급물살을 탄다. 서 회장은 올해 3월 경영 일선에 전격 복귀하면서 최대 과제로 3사 합병을 강조하고, 신속한 진행을 약속했다. 당시 서 회장은 “올해 안에 합병을 마무리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미래에셋대우로 합병 주간사를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통합 셀트리온은 2030년 매출 12조 원을 목표로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에 나선다. 바이오시밀러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암제를 중심으로 제형 및 용법·용량을 변경해 기존 제품을 더욱 차별화하는 동시에 추가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2030년까지 총 22개 제품을 확보하기로 했다. 신약 비중은 자체 개발 및 라이선싱을 통해 전체 매출의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글로벌 직접판매 유통망을 기반으로 주요 시장 지배력 강화에도 나선다. 동시에 2024년 상업 가동 예정인 3공장 등 설비 확충으로 안정적인 제품 공급까지 가능해져 글로벌 톱티어 기업의 필수 조건인 자체 판매·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통합 셀트리온은 합병 후 늘어날 재원을 활용한 주주가치 제고 방침을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현금배당 기준 배당성향을 확대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유혜은 기자 euna@
노상우 기자 nswr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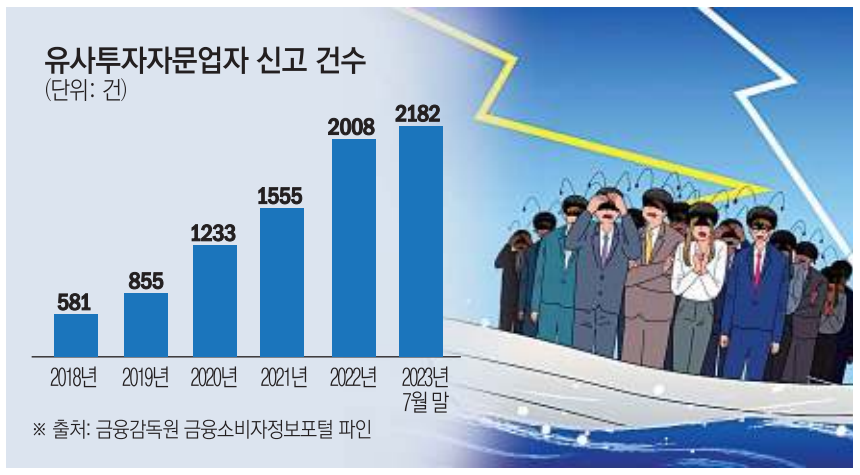
절벽 떠미는 피싱 사기 ❸ 교묘해진 ‘주식 리딩방’

증권사 연구원·유튜버 사칭에 속은 개미… ‘피싱’에 또 낚여 ‘2차 피해’

유사투자자문업 작년 신고 453건↑
문턱 낮고 규제 느슨… 다시 활개
고액 가입비 받은 뒤엔 연락두절
가짜 HTS로 투자금 가로채기도
정부, 피해 방지 대책마련 분주

#초보 투자자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공개 운영되는 리딩방에서 며칠간 투자 종목을 추천받았다. 해당 종목이 연일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더 좋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유료방’으로 입장하면 된다”는 운영자의 말에 500만 원에 달하는 1년 치 회비를 냈다. 투자금은 한 달 새 반 토막이 났다. A 씨는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위약금과 일일 사용료를 계산하면 돌려줄 돈이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테마주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리딩방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증가 건수는 45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고 증가 건수는 2019년 274건 → 2020년 378건 → 2021년 322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투자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주식리딩방은 ‘고수익’, ‘일대일 특별상담’ 등을 내걸며 유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과 인력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은 단순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 문턱이 낮고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애꿎은 투자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나 전문성 결여로 투자 손실을 보는 건 예삿일이다. A 씨의 사례처럼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는 투자자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고액의 가입비를 받아 챙긴 뒤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빈번하다.

증권사 연구원이나 유명 유튜버를 사칭해 주식리딩방 링크를 공유하는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주식리딩방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접근해 2차 사기를 벌인 사례도 있다. 6월 경찰은 손실금을 보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6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 전신)과 금융감독원 산하 ‘피해보상팀’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개인정보를 얻어내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금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코인은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없는 가짜로 드러났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면 투자자문업에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면서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불법 투자설명회 등을 특별·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viajeporlune@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 꼬리표가

‘보이스 피싱’ 피해 봤는데 가해자로
“잠깐 일하고 큰돈 준다” 알바 유혹
범죄 연루 모르는 경우 많아 ‘심각’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미자(65·가명) 씨는 금전적 피해는 자신이 봤는데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김 씨는 “주말을 노려 보이스피싱 일당이 딸을 사칭한 문자로 접근했고,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며 링크를 보내왔다. 링크를 열어본 것이 화근이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악성 앱에 감염됐지만, 김 씨는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 오히려 보험가입을 위해 필요하다며 요구한 신분증 사본,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넘겨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를 이용해 김 씨의 예금계좌에 있던 8000여만 원을 자신들이 소유한 가상계좌로 인출했다. 김 씨의 명의로 된 대포폰도 알뜰폰 업체를 통해 개통했다. 이후 조직은 대포폰을 이용해 500여 건의 스팸 발송을 하면서 또 다른 범행에 나섰다. 경찰은 이 스팸 발송을 통해 신고를 접수했고, 김 씨에게 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뤄진 것 같다며 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통보했다.

그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사실을 안 김 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했다. 특히 범행이 주말에 이뤄지다 보니 알뜰폰 고객센터는 아예 연결되지 않았고, 은행도 주말 업무를 쉬어 경찰 사건접수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발급이 어려웠다.

자신도 모르는 새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간단한 아르바이트’라고 접근해 조직의 수거책으로 삼는 일이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인구직 앱을 통해 “잠깐 일하고 큰돈을 준다”고 유혹한다. 정작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조직은 이들에게 계좌이체 등 업무를 시키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접근해 통장이나 신분증 등이 담긴 서류를 받아오도록 한다.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피의자 유형별 검거인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거된 대면편취형, 인출책, 절취책 등 하부조직원은 2018년 7128명, 2019년 1만748명, 2020년 1만3813명, 2021년 1만5785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엔 1만451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1만50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있다.

이런 하부조직원 중 다수가 자신이 범죄 조직에 연루됐다는 사실도 모른 채 가담한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큰돈을 주겠다’며 사회초년생을 겨냥해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아르바이트는 충분히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尹, 장례 마치고 미국행… 북핵억제·경제협력 3국 공조 강화

尹 "애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
윤기중 명예교수, 경기묘역 안장

한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회견
인태 넘어 전세계 위한 협력 강화
'캠프 데이비드 원칙' 채택 예정
3국 협력 비전·이행방안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 포함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이 17일 엄수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교수의 발인제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간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발인제에는 윤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가족과 일가친적 20여 명, 윤 교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가 참석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당4역'도 자리했다.

운구 차량은 윤 교수가 재직했던 연세대 상경대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돈 뒤 장지로 향했다. 장지는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안장식이 장지에서 엄수됐다"며 "가족, 친지, 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관, 취토, 평토 등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관식에서는 경제·통계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윤 교수 저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 봉헌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애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삼일장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서울로 복귀해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찬에 참석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정상회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문건이 채택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현재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문서로 향후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내용을 담는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 규범, 첨단 기술,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할 전망이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게되며 3국 협력의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공동성명이 될 예정이다. 공동성명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공동성명은 'Spirit(정신)'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세 나라간 협력의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결국 이들 간의 3국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정대한 기자 vishalist@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 침몰시킬 승객 승선 못해" 친윤, 총선 앞두고 '집안단속'

이철규 사무총장, 의원총회서
"승선 표현, 공천 염두에 둔 것"
친윤 '공천 줄세우기' 해석도

내년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내부 단속에 나섰다. 당내에서는 '친윤표 공천 줄세우기'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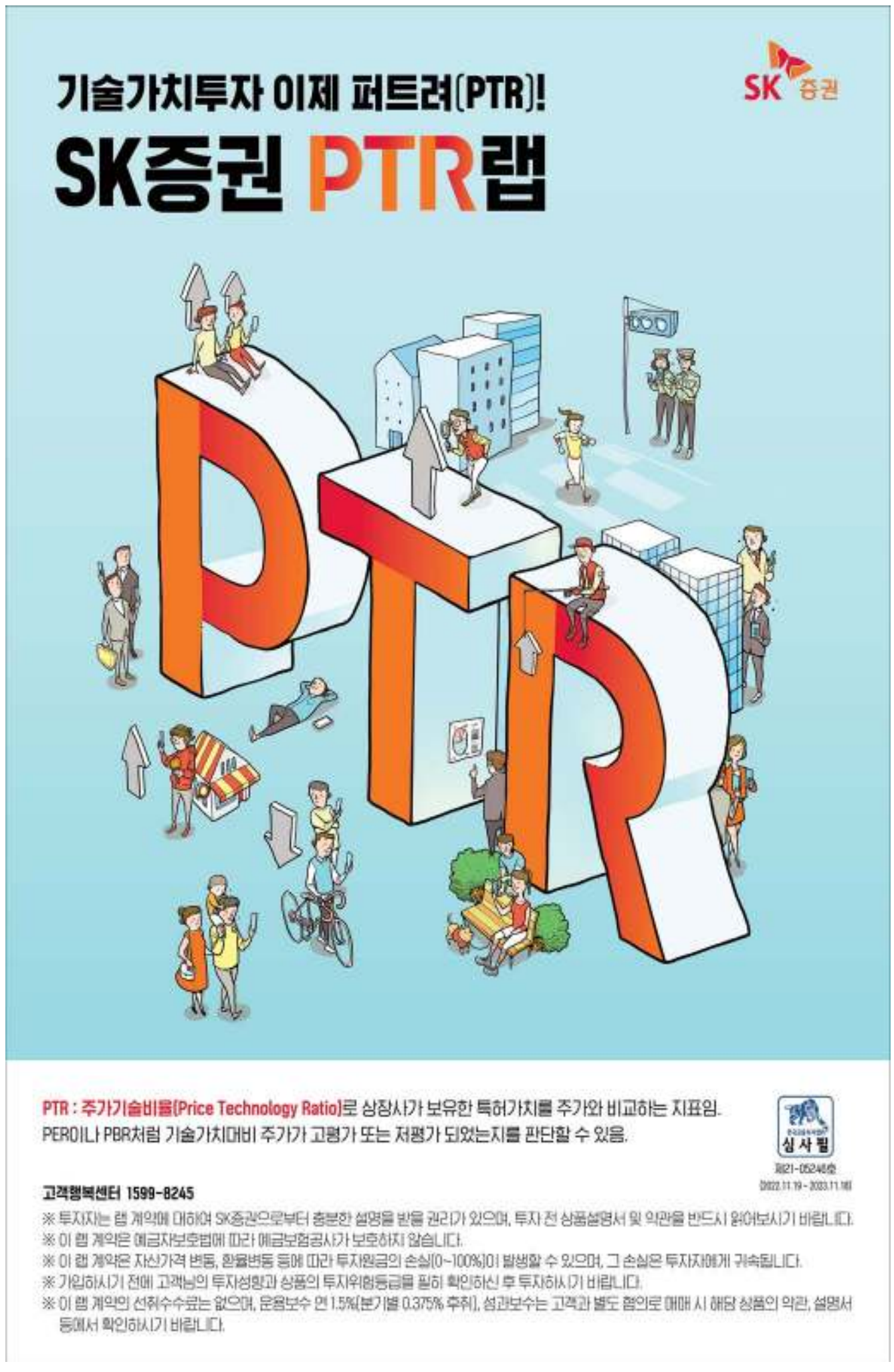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은 1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일반론적인 얘기"라면서 "언행에서 그런 걸 하지 말자, 언행을 조심하자, 이런 걸 다 함축한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인 데다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 받는다. 지역구 관리 여부를 평가하는 당무감사는 공천 평가의 핵심 자료가 된다. 여권 관계자는 "사무총장이 공천을 준다, 안 준다 할 수는 없지만, 당무감사에서 부적격 의견을 줄 수는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입에서 '승선'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결국 "공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에 쓴소리를 해서) 징계받은 사람은 당연히 공천이 안 되거나 크게 불이익을 받거나"라고 분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까지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더 이상 당에 쓴소리를 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당에 논란이 됐던 '수도권 위기설'만 해도 당에서 비주류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경고한 발언들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심각한 위기"라면서 "갤럽을 포함해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에 야당을 뽑겠다는 의견이 여당을 뽑겠다는 의견보다 작게는 10%(포인트)에서 많게는 20%(포인트)까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총선 위기감이 엄습하면서 '유승민·이준석 포용론'까지 불거졌다. 당내에서는 이용호·조경태·하태경 의원 등이, 장외에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홍준표 대구시장 등 당 지도부와 거리가 먼 계파 인사들이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 측은 "근거 없는 위기감(8일 김병민 최고위원 KBC 인터뷰)"이라고 일축했다. 한 친윤계 의원도 "당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야당에 대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것에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9억 이하 집 재산세 인하 3년 연장… 유턴기업엔 75% 감면

〈1 주택〉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출산일 이전 1년·이후 5년 내에 주택 취득시 최대 500만원 면제

'유턴기업' 취득세는 50% 감면

주택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추후 발표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 있다고 보고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했었다.

이 밖에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감경했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만1730가구 정도가 약 625억 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로 6000만 원 이하는 0.1%에서 0.05%, 60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 원 초과 4억500만 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을 받고 있다. 이번 특례가 종료되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車 수출 초고속 질주… 최단기 400억弗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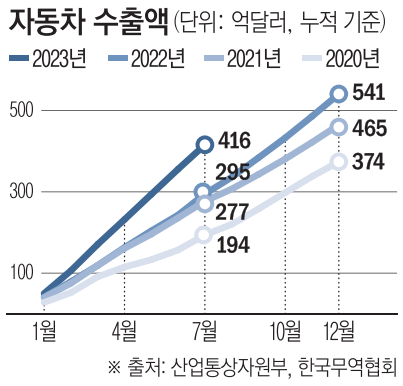
전년 7월 동기 대비 41% 증가
올해 수출액 역대 최고치 예상
산업부 "IRA 적극 활용한 결과"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단기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1~7월 자동차 수출액은 4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며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연간 기준 최고 자동차 수출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 400억 달러는 10월에 이뤄졌다. 올해는 7월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이 기록을 3개월 단축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월 한 달간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 증가한 59억 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사 여름휴가로 인한 월말 조업 중단에도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자동차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갔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2월 최초로 20억달러를 넘어선 뒤 6개월 연속 20억 달러 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수출액 (단위: 억달러, 누적 기준)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친환경차 수출 대수도 작년보다 10.4% 늘어난 5만9799대로 전체 수출차(23만대) 4대 중 1 이상이 친환경차로 나타났다. 차종별 수출액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전기·수소차 11억5000만 달러(58.2% ↑), 하이브리드차 6억3000만 달러(5.1%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2억3000만 달러(166.2% ↑) 등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상 친환경차의 7월 판매량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렌트,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 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IRA 규정을 우리 자동차 업계가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IRA 대상 친환경차의 판매량은 1만3000대로, 작년보다 93% 급증했다. 이 가운데 상업용 차량 비중은 지난해 5%에서 49%까지 크게 늘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스포츠·레저·골프산업 박람회 개최

1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동아스포츠·레저·골프산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품을 살펴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추경호 "中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신속히 추진"

방한 단체관광 재개 조치에 대응
기업 프로젝트 지원에 7.2兆 투자
"경기반등 위해 수출지원 역량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 조치에 대응해 비자·교통 등 입국편의 제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다각도로 추진중인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 및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 수출·투자 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7건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해 7조20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설계기업)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성장 핵심 산업의 현장 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정부는 정책효과가 그림자 규제 등으로 기업 수출과 투자가 저하되지 않도록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부문의 경우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광주(공공, 2023~2024년)와 판교 등(민간, 2023~2025년)에 조속히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공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AI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시스템반도체 기업환경 조성(MPW 등) 지원 비용을 작년 56억 원에서 올해 64억 원으로 늘린다. 시스템반도체 IP뱅크 플랫폼 구축(IP) 지원 비용도 33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자 선정 시 국산 AI 반도체를 사용하거나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점부여 등을 통해 협업생태계를 강화한다.

도심항공교통(UAM) 부문의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UAM용 주파수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한 UAM 운항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단계적 주파수 발굴·공급을 추진한다. 하반기부터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에 나선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연안교통 시장 단계적 민영화… 6000억 투입

2030년까지 여객선 37척 현대화
정부, 수요 없는 항로는 공공 운영

정부가 연안교통 시장을 수요 없는 항로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등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선사 57개사의 총매출액은 3889억 원으로 6조9000억 원의 시내버스, 3조7000억 원의 항공, 2조9000억 원의 도시철도, 1조1000억 원 규모의 시외버스 업종과 비교해 미미하다. 특히 102개 항로 중 흑자가 나는 항로는 23개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연안교통을 과감하게 민간에 넘겨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30년까지 6000억 원 규모의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연안여객선 37척을 현대화한다. 연안선사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민간금융 보증지원 외 매칭펀드를 신설해 선박 건조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또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장기(15~25년)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을 운용한다. 현재는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을 보조한다.

민간이 보조항로 운영을 희망하면 선박건조 보증, 한시적 결손금 지원, 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수요 없는 항로는 공공이 운영한다. 고수익·저수익 항로를 함께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항로운영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 아울러 노후 연안여객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시 취득세를 감면(1~2%포인트(p))해주고 녹색금융 금리혜택(0.9~3.4%), 이차보전을 우대(0.5%p)해주기로 했다. 친환경연료 여객선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국가보조항로를 테스트베드로 해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임플란트,
치아와 잇몸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환자가 더 잘 알까?
의사가 더 잘 알까?
당신의
치과의사는 완다
22년 장기 임상데이터 보유 오래가는 임플란트를 위해 연구를 멈추지 않는 덴티움
10년 이상 임플란트 생존율 97.9% 완벽한 임플란트를 위해 한계에 도전하는 덴티움
Dentium
덴 티 움
광고영상
바로보기

3곳 중 1곳 국내사업 전무… '블록체인 허브' 헛꿈 그치나

부산시 2년간 MOU 전수조사

블록체인·가상자산 협약 31곳
12곳이 영업 안한 채 '간판'만
연락 안되는 경우도 부지기수

해외기업과 협약 맺은 VCABB
1억달러 투자 이행 '감감무소식'
기업들 지사 이전 약속도 안 지켜

부산광역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 '3곳 중 1곳'은 사실상 국내에서 이렇다 할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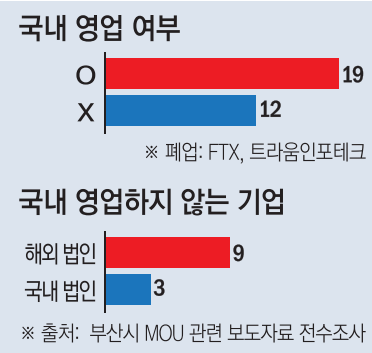
본지가 박형준 부산 시장이 취임한 202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시가 맺은 업무협약(MOU) 400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산시가 협약을 맺은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기업은 총 31곳이었다. 그중 12곳이 부산시와의 협업은커녕 이렇다 할 국내 사업 및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의 약 39%로 3곳 중 1곳이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셈이다.

먼저, 지난해 11월 파산 신청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FTX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 트라움인포테크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는 후오비 글로벌과 지분을 정리하고 사명을 변경한 채 내부 정비 중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거래소까지 문을 닫은 상황으로 8월 현재 제대로 된 국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상자산 거래소 게이트 아이오, EOS 네트워크 파운데이션 등은 해외에서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사업이나 영업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이트 아이오는 지난해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겠다고 약속했지만, 부산시와의 협약 진행 사안에 대해 2주 넘게 답을 주지 않았다. 지난해 협약을 맺은 기업 중 부산시 관계자와도 연락이 잘 안 되는 곳이 부지기수란 게 업계 전언이다.

부산시와 업무협약 체결한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 (단위: 곳)

세부 업종	
기술 R&D	7
자산운용	3
거래소	7
게임	3
벤처투자사	6
코인 발행사	1
기술보안	2
서비스	2
합계	31



부산시가 협약을 맺은 기업 중에는 너무 영세해 어떤 사업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5월 부산시로 본사이전을 약속한 레브코라는 스타트업은 등기 주소 찾아가 보니 성남 분당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이처럼 국내 사업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 보니 협약 내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해외 블록체인 벤처 투자사와 MOU를 맺고 VCABB(부산 블록체인 벤처캐피털 협의체, Venture Capital Alliance of Busan Blockchain)를 통해 향후 3년간 1억 달러를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위해 투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투자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부산시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디지털자산거래소 역시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다.

크립토 닷컴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오케이비트와 전자결제업체 피앤링크를 인수 후 국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부산시와 협력 사업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부산으로 지사를 설립한다고 약속했던 크립토닷컴은 8월 현재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 한국 지사 사무실을 두고 있다.

크립토닷컴 관계자는 "부산시와 업무 협약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뚜렷하게 추진 중인 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보안 감사업체 서틱은 엑스플라 위메이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활발히 국내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해외 지사에서 한국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인지 부산시는 올해 들어서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협약을 맺지 않았다. 블록체인 관련 협약은 BNK부산은행과 맺은 블록체인 기반 통합 시민플랫폼 구축, 운영 시범사업이 전부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최대한 많은 MOU를 하려고 하는 데 목적 없이 어떤 걸 할 건지 명확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블록체인만 붙으면 MOU하는데, MOU했다고 해서 기업들이 부산에 와서 활동할 이유가 없다. 목적이 불분명한 게 문제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임유진 기자 newjean@

지자체는 기업 바라기, 업계는 당국 압박 수단… 블록체인 도시 '동상이몽'

블록체인 기술 금융분야 활용 넘어
물류·데이터거래 등 영역 넓힐 것
지자체들 세부계획 없이 밀어붙여

두바이·싱가포르 등 정부 전폭 지원
'지역 허브' 위해 규제 혁신 등 필요

부산·인천광역시의 부실한 블록체인 업무협약(MOU)에는 단순한 치적 쌓기를 너머, 지자체 홀로 블록체인 허브를 일구기 쉽지 않은 제도적 배경이 있다. 가상자산 시장 침체 속에서 사실상 금융당국과 정부의 뒷받침 없이 블록체인 허브를 구축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산시 MOU 실태는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과 지자체가 업계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었다는 것,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부산시를 통해서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싶었던 것 같다. (업계와) 서로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지만, 안 되니까 업계는 관심 잃고 결국 부산시도 손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낸스,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기업의 구미를 당긴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은 금융당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 및 사법리스크 위험 등을 이유로 바이낸스 등의 해외 거래소의 국내 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제도적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결국 바이낸스는 고팍스를 인수하며 다른 국내 진출 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을 밀어붙였고, 현재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사업은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연이은 악재와 유동성 여파로 가상자산 시장 업황도 나빠졌다. 대구시는 올해 2월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했으나, 퓨리에버 등 시세 조종 사건 등 여러 악재가 터지자, 2달 만에 입장을 바꾸고 사업을 전면 철회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대구지역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부산·인천 '블록체인 허브' 추진

부산시	2019년	7월	중기부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선정, 규제자유특구 1차 사업 지정
	2020년	5월	중기부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우수지역' 평가
		6월	규제자유특구 3차 산업 지정
	2022년	12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2023년	4월	규제자유특구 8차 산업 지정
		8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최종 계획안 부재
인천시	2023년	3월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위한 '4개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
		5월	인천경제청과 블록체인 비전 선포·양해각서 체결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블록체인은 특히 금융에 특화돼 있는데, 금융 관련 규제는 금융당국이 하기 때문에 지자체 혼자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는 금융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향후 물류·데이터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했다"며 "부산시가 MOU를 맺을 때 어떤 기술 아래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역량을 집중할지 계획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기업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서울 강남에 몰려있고, 재택 근무를 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도 지역 허브 설립을 어렵게 하는 지점이다. 실제로 지역으로 본사를 옮긴 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핵심 인력 대부분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해당 거래소 관계자는 "실력이 뛰어난 개발 인력 대부분이 서울 근무를 선호해서 직원들에게 지역 근무를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바이,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블록체인 허브는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두바이는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국부 펀드가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채 교수는 "'코리아'라는 브랜드 없이 (허브 조성을) 지자체 단독으로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특히 금융 규제 혁신과 같은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강력히 받은 상태에서 블록체인 특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부산시의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사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위원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어렵지만, (거래소 사업은) 진행이 잘되고 있다. 몇몇 보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세간의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임유진 기자 newjean@

문 굳게 닫힌 채 '내용증명' 수령 안내서만

부산·인천, 블록체인 '묻지마 MOU'

▶1면서 계속

지난달 본지가 트라움인포테크 본사를 찾아갔을 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한동안 사람 발길이 끊겼는지 문에는 '내용 증명을 수령하라'는 도착안내서와 광고지가 붙어 있었다. 같은 층에 있는 모 회사 관계자는 "사무실이 올해 2~3월부터 문을 닫은 듯 거의 불이 꺼져 있었다. 간간이 사람들이 오갈 뿐이었다"고 말했다. 본지는 델리오의 비트코인 수탁 관련 의혹에 대해 이상훈 트라움인포테크 대표에게 질의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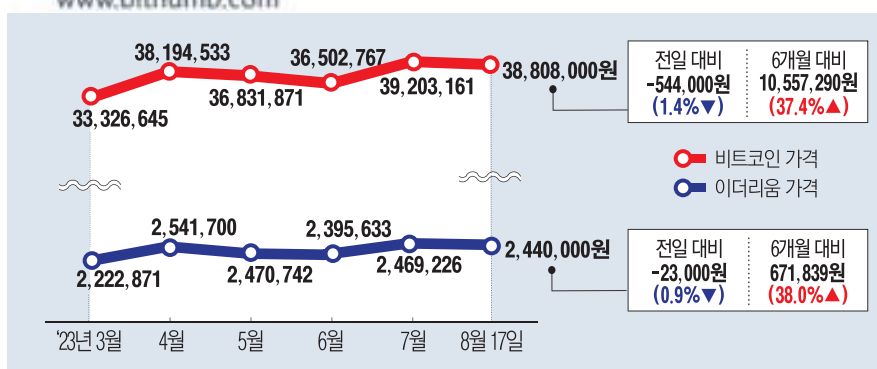
하루·델리오 사태발 연관 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부산시만이 아니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5월 9일 하루인베스트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인천시는 이날 '인천메타노믹스 2023' 행사를 열고, 블록크래프터스를 포함한 블록체인 15개사와 MOU를 체결했다. 유정복 시장은 블록체인 허브 비전을 선포하고, "정부, 기업, 학계 등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블록체인 허브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약을 체결한 지 약 한 달 만인 6월 13일 하루인베스트는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루인베스트 역시 정확한 자금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묶인 자금 규모는 최소 150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하루인베스트 관계사 블록크래프터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마당발이라는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그 회사를 통해 블록크래프터스를 추천받았다"면서 "선포식을 한 취지는 인천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업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는 뜻에서 문호를 개방한 것이라 자세한 사업 내용이나 사업 규모 등에 상관없이 초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협약 체결 이후 블록체인 관련 샌드박스 사업이나 교육 프로그램 진행은 외국계 기업과 하고 있고, 국내 기업은 맨파워나 특별한 사업 영역이 없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고 그냥 끝냈다"고 말했다.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3년 8월 17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84,800	-19,800 (6.5%▼)	이오스	868	-44 (4.8%▼)
리플	800	-12 (1.5%▼)	트론	101	-1 (1.0%▼)
솔라나	31,530	-90 (0.3%▼)	스텔라루멘	171	-4 (2.3%▼)
에이다	375	-1 (0.3%▼)	비트코인에스브이	42,550	-2,770 (6.1%▼)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비수기 접어든 현대차 "그랜저 510만원 세일"

13개 모델 할인 판매
아이오닉5·6 500만원 이상 뚝
전년동월 '할인 0' 정반대 상황
신차가격 올랐는데 高금리 기조
수요 줄자 비수기 선제대응 나서

차량 가격 상승, 고금리 기조 등으로 판매 증가 추세가 꺾인 현대자동차가 내수에서 대대적 할인 판매로 대응에 나섰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자동차는 그랜저, 아이오닉 5·6, 팰리세이드 등 인기 차종을 포함해 총 13개 모델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오닉 6(550만 원), 아이오닉 5(520만 원), 그랜저(510만 원)는 모두 500만 원 이상 할인한다. 지난해 8월 기본 할인이 적용되는 모델이 아예 없던 것과 비교하면 할인 모델 수도 크게 늘었다.

특히 그랜저, 아이오닉 5·6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전 모델에 대해 기본 400만 원을 할인한다. 지난해 재고도 쌓여있다는 의미다.

현대차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신차를 대거 쏟아내는 '신차 슈퍼 사이클'을 맞아 차량 가격을 높여왔다. 이와 동시에 부분 변경(페이스 리프트) 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옵션을 기본화하며 차량 가격이 꾸준히 높아졌다.

내수판매 기준 현대차의 평균판매단가(ASP)는 2019년 승용 3774만 원, 레저용차(RV) 3543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승용 5191만 원, RV 4685만 원까지 상승했다. 5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승용 모델은 37.5%, RV는 32.2%나 가격이 오른 셈이다. 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등 고가의 차량 가격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도 적지 않은 상승률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 등으로 수요 축소가 이어지며 3분기부터 비수기가 시작되자 할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반도체 공급난 완화의 기저효과로 올 하반기 판매량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현대차는 내수 시장에 총 39만6550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18.6%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3분기를 시작하는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5만7503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고도 쌓이고 있다. 현대차가 14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현대차 재고자산은 14조29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1조6456억 원에서 22.7%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자산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4%로 0.8%포인트(p) 늘었다.

현대차의 재고자산회전율도 지난해 말 8.8회에서 올해 2분기 말 8.0회로 낮아졌다. 재고자산이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갱신하는 등 충분한 할인 여력을 확보한 만큼 현대차는 가동률을 유지하며 가격 조정을 통해 시장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할인 모델은 경우 재고, 판매량 추이 외에도 판매 시점, '가정의 달' 같은 테마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정해진다"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2mj@

국내 중형 SUV 왕의 귀환… '더 뉴 쏘렌토' 출시

기아가 1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앤리조트 애스톤하우스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4세대 쏘렌토의 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쏘렌토' 모델을 사전 공개했다. 신형 쏘렌토는 기아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에 기반한 외관과 함께 개방감과 편의성을 겸비한 실내를 갖췄다. 조현호 기자 hyunho@

4세대 쏘렌토 상품성 개선 모델
기아 미래지향적 디자인 철학 담아
2.5 가솔린 터보 3506만원부터

기아 4세대 쏘렌토가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쏘렌토(쏘렌토)'로 거듭났다. 무엇보다 이 시대 기아의 디자인 색채가 드러났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기아는 18일부터 쏘렌토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4세대 모델은 2020년 출시 후 매년 국내에서 6만 대 이상 판매된, 3년 연속 중형 SUV 시장 1위를 지켜온 효자 모델이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3만6000대 이상 판매됐다.

새 쏘렌토는 기아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에 기반을 둔 세련되고 강인한 외관과 함께 개방감과 편의성을 겸비한 실내를 갖췄다.

외장은 '미래적인 대담함(Futuristic Boldness)'이라는 콘셉트로 미래지향적이고 다부진 SUV 디자인을 갖췄다.

실내는 '경계가 없는 이어짐(Borderless Wideness)'을 주제로 수평적인 조형을 통해 높은 개방감을 연출했다.

12.3인치 크기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하나의 화면처럼 매끄럽게 연결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기아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가 적용돼 다양한 정보를 통일감 있게 보여준다.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3506만~4193만 원 △2.2 디젤 3679만~4366만 원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4WD 4161만~4831만 원이다. △하이브리드 2WD 모델은 친환경차 세제혜택 후 기준 3786만~4455만 원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無라벨 생수' 편의점서도 판다

대한상의-제주개발공사 MOU
페트병 뚜껑에 차세대QR 적용
낱개 단위로 판매 가능해져

제주삼다수 그린. 사진제공 제주도개발공사

차세대 QR 뚜껑을 적용한 무(無)라벨 생수가 나온다. QR 코드 도입으로 편의점 등에서 낱개 단위로 판매하는 생수에도 라벨을 붙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GS1 QR 활용을 통한 페트병 無라벨 확산 및 재활용 촉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존 QR 코드는 상품 식별코드가 없어 유통매장 계산용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기존 QR을 적용한 무라벨 생수를 출시해도 낱개 판매는 어렵고, 묶음 포장 후 상품 식별 바코드를 비닐 포장 위에 표기해야 했다. 그동안 편의점에서 무라벨 생수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이유다.

차세대 QR 코드인 'GS1 QR'은 상품 식별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소비기한, 이력 추적 코드 등도 표시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제주개발공사를 지원해 GS1 QR을 이달 말부터 생산, 출시되는 제주삼다수 제품 3종의 뚜껑에 우선 적용한다. 단계적으로 전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지금까지 묶음 단위로 판매되는 생수에만 주로 적용되었던 무라벨 페트병이 낱개 단위로 판매되는 생수에도 확대 적용돼 페트병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GS1 QR이 생수 페트병뿐 아니라 다른 소비재 상품 포장의 무라벨 확산 및 재활용 촉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설명회, 바코드 검증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GS1 표준을 활용한 유통업계의 친환경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SK E&S, 남부발전과 글로벌 그린수소 프로젝트

청정수소·암모니아 사업 MOU
그린수소 생산해 혼소발전 활용

SK E&S가 한국남부발전과 손잡고 글로벌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내 블루수소 생산은 물론 해외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까지 청정수소 생태계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SK E&S와 SK 플러그 하이버스(SK Plug Hyverse), 한국남부발전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청정수소·암모니아 사업과 혼소발전 실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 및 해외에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그린수소 또는 그린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이를 국내 수소 혼소 발전 등에 활용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

SK E&S와 SK 플러그 하이버스는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그린수소·암모니아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또 국내외 그린수소 프로젝트에 고분자전해질막(PEM) 방식의 전해조를 공급하고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그린수소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수전해)하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남부발전은 공동 사업을 통해 생산한 그린수소·암모니아를 구매하고, 보유 중인 국내 석탄 및 가스 발전설비의 혼소 연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3사는 우선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 공동 청정수소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컨소시엄 구성 등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권형균 SK E&S 부사장은 "SK E&S의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노력은 탄소배출 감축은 물론 국내 청정에너지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부발전과 함께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KT서브마린→'LS마린솔루션' 간판 교체

임시 주총서 정관 변경 승인
4개월만에 인수절차 마무리

LS전선이 인수한 해저 전문 시공 업체 KT서브마린(KTS)이 'LS마린솔루션'으로 새 출발한다.

LS전선은 KT로부터 KTS의 지분 24.3%(629만558주)를 449억 원에 매입, 총 45.69%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통해 경영권 지분을 잠정 확보한 지 약 4개월 만에 모든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LS전선 관계자는 "KTS 인수로 해저 시공 역량을 강화, 해저케이블의 생산부터 시공까지 턴키(turn key)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KTS는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LS마린솔루션'으로의 사명 변경 등 정관 변경에 관한 안건들을 승인했다.

KTS는 올해 상반기 신성장동력인 해저 전력케이블 사업 참여와 자산 효율화 등에 힘입어 지난 20년래 최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달성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농기계 투톱’ 대동 vs TYM… ‘실적 농사’ 해외서 갈렸다

대동, 상반기 매출 전년比 2.7%↑
수출규모 22.6% 올라 ‘실적 방어’

같은 기간 TYM 30.5% 큰폭 축소
“소형 트랙터 도매 시장 위축 영향”

농기계업계 양강 업체인 대동과 TYM의 실적이 엇갈렸다. 대동이 내수 시장의 어려움을 해외에서 만회했다면 TYM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해 실적 하락 폭이 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동과 TYM의 상반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양사의 희비가 수출에서 갈렸다.

대동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8358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 규모다. 영업이익은 634억 원으로 6.4% 감소했다. 반면 TYM은 상반기 매출이 4798억 원으로 30.5% 줄었다. 매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영업이익 역시 32.9% 축소된 625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작년 TYM에 뒤처졌던 대동의 수익성이 다시 금 앞지르게 됐다.

양사가 확연히 갈리는 성적을 거둔 것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 즉 수출 실적에 기인한다. 대동은 내수 시장에서 상반기에 213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작년 상반기보다 30.4% 줄어든 실적이다. TYM 역시 49.3% 감소한 1414억 원에 그쳤다.

내수 시장의 부진은 일찌감치 예고된 것으로, 정부의 쌀 재배면적 축소 정책과 쌀값 불안에 따른 농가의 구매력 저하에 기초한다. 정부는 쌀 소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어 올해 벼 재배면적을 작년보다 3만7000ha 줄이기로 한 바 있다.

벼농사가 줄어들면 연쇄적으로 농기계 수요도 감소한다.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융자지원 농기계 공급 실적은 물량으로는 1만5396대, 금액으로는 34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1만 9508대, 4542억 원 대비 각각 21%, 15% 줄었다.

이를 만회한 것이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다. 대동은 상반기 수출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6% 증가한 6228억 원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TYM은 17.9% 줄어든 3384억 원에 그쳤다.

대동은해외에서 제품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작년보다 24.5% 증가한 2만2900대의 트랙터를 판매해 창사 최초로 상반기 트랙터 수출 2만 대 기록을 세웠다. 상반기 기준 100마력 이하 트랙터 시장 규모가 전년과 비교해 약 12% 감소한 북미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역대 최대 점유율인 8.9%를 확보하고 작년 대비 약 14%의 매출 신장을 달성했다. 또 유럽과 호주에서도 공격적 마케팅으로 54%, 74%의 매출 성장세를 이뤘다.

대동은 맞춤 전략을 통해 해외 시장 공략의 고삐를 죌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직판 체계를 갖춘 독일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 유럽에서 올해 3000대, 5년 내 1만 대 이상의 트랙터를 판매하는 외형 확대를 꾀한다. 이를 위해 시장 전문가를 현지 법인장으로 영입해 유럽 법인을 재편성하고 있다. 또 독일어권 국가 및 빅마켓 국가 거점화, 중대형 트랙터 시장 점유율 확보, 모빌리티 및 농업 로봇의 유럽 시장 공략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북미에서는 중대형 트랙터 매출 확대 일환으로 북미 조립 라인 증설과 캐나다 법인 창고의 확장 이전으로 제품과 부품의 현지 공급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미 현지에서의 트랙터의 작업기 및 옵션품의 연 조립 능력이 2000대에서 1만대로 확대되면 북미 딜러 대상으로 다양한 조립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북미 소형 트랙터 시장의 축소를 실적 저하의 이유로 든 TYM은 신제품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 TYM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소형 트랙터 도매 시장이 위축돼 해외 실적에 영향을 줬고, 국내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실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환율 상승과 해상 운송비 감소 등으로 매출 원가가 개선해 영업이익률은 13%대를 유지했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에서 중대형 트랙터 신제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만큼 올해 연간 실적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대동·TYM 연결실적 및 내수·수출
(단위: 만원)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TYM	내수	2785억9800	1413억8500
	수출	4121억2800	3384억3600
	매출	6907억1500	4798억2100
	영업이익	930억4000	624억6200
대동	내수	3061억7900	2129억8000
	수출	5079억9200	622억7700
	매출	8141억7100	8357억5800
	영업이익	676억9300	633억5000

※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함께하는 내일

장애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애인 고용 기업의 성공을 위해,
장애인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장애인서비스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서비스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끊지 않는 밥솥 사업… 적자폭 더 커진 쿠첸

당기순손실 8.3억… 적자폭↑
국내매출 하락·수출 지지부진
신규 전속모델·캐릭터로 쇄신

국내 밥솥 제조 양강 중 한 곳인 쿠첸이 실적 부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첸은 올해 상반기 7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855억 원) 대비 16.5% 감소한 수치다. 당기순손실은 8억3700만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순손실(1억3300만 원)보다 적자폭을 키웠다. 이 기간 국내외 실적을 보면 내수는 795억 원에서 669억 원으로 밀려났고, 수출액은 59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수준으로 감소했다.

쿠첸의 연간 매출은 △2017년 2372억 원 △2018년 2233억 원 △2019년 2091억 원 △2020년 1852억 원 △2021년 1633억 원으로 내리막을 걸었다. 지난해 1642억 원으로 반짝 반등했지만 올해 감소세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쿠첸의 매출 몸집이 줄어든 것은 내수 부진의 영향이 크다. 2017년 2267억 원에 달했던 국내 매출은 △2018년 2124억 원 △2019년 1993억 원 △2020년 1698억 원 △2021년 1533억 원 △2022년 1526억 원으로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 기준 국내 매출은 700억 원에 못 미쳐 내수 부진의 골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계속되는 내수 악화에 쿠첸은 올해 해외사업에 공을 들일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출액은 2021년 100억 원에서 지난해 115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 45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쿠첸은 밥솥 제조 경쟁사가 활발한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과 달리 밥솥 제조 한 우물을 파는 노선을 택했다. 지난해 박재순 대표가 제품 차별화와 IH압력·모터기술 고도화 등을 강조했던 만큼 기존의 전략 노선이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에 쿠첸은 지난해 ‘121밥솥’ 시리즈와 ‘트리플 밥솥’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 기능과 디자인을 강조한 ‘더 핏’, 쌀의 품종과 잡곡 종류에 따라 취사를 하는 ‘브레인’을 잇따라 출시했다. 하지만 줄어드는 쌀 소비와 간편식의 인기, 전반적인 소비 부진 등 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적지 않아 활로를 찾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쿠첸은 돌파구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 초 젊은 층의 브랜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웹드라마 ‘먹어 BAR’ 제작과 브랜드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어 홍보에 나섰다. 애초에 밥솥 제조 기업으로 젊은 층의 관심을 얻기가 쉽지 않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달에는 새 전속모델로 김연아와 손을 잡았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중국 관광 門 열면 뭐하나…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여행 전면개방' 현지 반응

중국인 '해외 반중 정서' 두려움
비자발급·경제적 어려움도 원인

미국·호주정부도 "中 여행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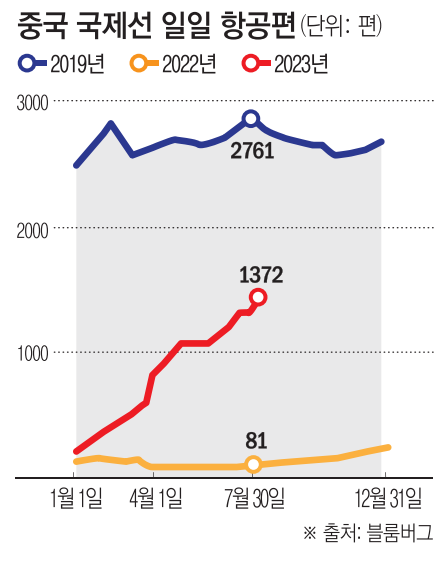
항공편, 팬데믹 이전 절반 수준

중국 정부가 올해 내·외국인의 여행을 전면 개방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은 오지 않고 있다. 중국을 찾는 외국인은 줄고 해외여행을 즐기려는 내국인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은 비용과 지정학적 이유 등으로 중국 입국을 꺼리고 내국인은 경제 불안에 자국 여행을 선호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고 국경을 다시 열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은 비자 발급의 불편함과 항공편 부족,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만 결제할 수 있는 독특한 금융 시스템과 언어 장벽 등으로 중국 입국에 머뭇거리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특히 비자의 경우 대사관이나 지원 센터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일이 빈번해 외국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중국 비자를 받기 위해 16시간 넘게 줄을 선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미국인이 중국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은 최소 185달러(약 25만 원)로 알려져 있다.

베이징 여행 가이드인 제이 리는 "요즘 자금성에서 외국인이 20~30명 정도 보인다면 많은 편"이라며 "대부분은 사업 때문에 중국에 오고 관광은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의 약 20%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편 부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중국의 국제선 운항은 약 1400편 수준으로, 팬데믹 전인 2019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항공사들은 팬데믹 기간 급감한 수요에 항공편을 줄였다. 그 사이 경영난이 심화해 올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빠르게 증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HSBC에 따르면 중국 3대 항공사는 상반기 약 130억 위안(약 2조375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2022년 이들의 적자 규모는 총 1900억 위안에 달했다.

미국과의 지정학적 갈등도 장애물이다. 이달 초 만다린오리엔탈그룹의 제임스 라일리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중국으로 유입되는 인파는 적다"며 "사람들을 오지 않게 하는 데는 광범위한 지정학적 갈등이 있다. 이 경우 갈등이 없을 때보다 유입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사이트엔 중국과 관련해 "출국 금지와 부당한 구금 등 현지 법률의 자의적인 집행으로 인해 본토 여행을 재고하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호주 정부도 "중국 당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들을 구금한 적 있으며 중국 내에선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중국인들도 해외에 나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자국 여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래곤테일인터내셔널이 4월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중국인 응답자 58%가 올해 해외여행 계획이 없거나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비자 발급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 본인들이 해외에서 비우호적인 대접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국제선과 달리 중국 국내선 교통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당국은 올해 중국 내 여행 시장이 5조 위안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우크라이나 병사가 루한스크주 크레민나 인근에서 16일(현지시간) 드론을 조작해 러시아 탱크를 정찰하고 있다. 아래는 드론을 날리는 우크라이나 병사. 크레민나·바흐무트(우크라이나)/AP뉴시스

"최대 20만기"… 우크라, 사상 최대 드론전 베팅

미사일보다 싸고 대량생산 쉬워
크렘린궁 포함 올해 120건 공격
조종사만 1만… 러도 드론 반격

6월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상 최대 무인기(드론)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최근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 출현 빈도는 급격히 증가했다. 러시아 본토 및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드론 공격은 올해 120건 이상 확인됐다. 4월 이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그 인근 지역에 대한 공격도 20건에 달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오전 5시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 남서쪽 칼루가주에서 드론 3대를 동원해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에 집중하는 이유는 미사일보다 제조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쉽기 때문이다. 특히 국산 드론은 수입산보다 가격이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에 우크라이나의 40여 개 업체는 지난해 여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찰용·공격용 드론을 생산했다. 지난해 전쟁 초기만 해도 드론 개발 기술이 없었던 우크라이나는 튀르키예산 드론 바이락타르 TB2 수입에 의존해 왔다.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드론

	보버 (Bober)	마구라 V5	UJ-22 에어본
전체 길이	2~2.5m	5.5m	3.3m
순항속도	150~200km/h	40km/h	140km/h
최대 비행거리	1000km 이상	833km	800km
폭발물 적재	20kg	320kg	20kg
투입 추정 장소	모스크바 인근	크림대교	크렘린

드론 조종사 훈련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약 1만 명의 조종사가 훈련을 받았으며 17개의 드론 관련 부대가 출범했다. 연내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전력은 수만 명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사용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드론 전력 확충을 담당하는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CNN에 "올해 연말까지 최대 20만 대의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 연설에서 "드론 생산은 확대돼야 하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러시아도 미사일 대체무기로 드론을 선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현재까지 2000여 대의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을 공격에 투입했다.

서구권과 중국의 관심도 양국의 대규모 드론전에 쏠리고 있다. 대만 유사시 등 향후 대규모 분쟁이 일어났을 때 투입할 수 있는 드론 규모 등이 전황을 좌우한다는 것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다. 한 주요 7개국(G7) 군사 관계자는 "드론의 방위상 중요성이 명백해짐에 따라 각국에서의 자체 생산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美 경제 버팀목 '초과저축액' 3분기 소진 전망

〈팬데믹 이전 대비〉

샌프란 연은 "가계지출 계속 증가"

미국 가계의 초과저축액이 올해 3분기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6월까지 미국 가계의 총 초과저축액이 1900억 달러(약 254조8850억 원)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초과저축액은 올해 3분기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초과저축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 추세를 웃도는 가계 저축액을 뜻한다.

초과저축액은 2021년 8월 2조100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3월 5000억 달러가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후 미국 정부가 데이터를 수정한 이후 실제로는 초과저축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은 이전 추정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가구 가처분소득이 이전에 보고된 것보다 더 적고, 개인 소비가 더 많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총 가계저축액이 500억 달러 이상 감소한 반면 2분기 가계지출은 견실한 속도로 계속 늘었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 축적된 초과저축은 미국 경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도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미국 실물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를 지탱하면서 버팀목 역할을 했던 것이다. 변효선 기자 hsb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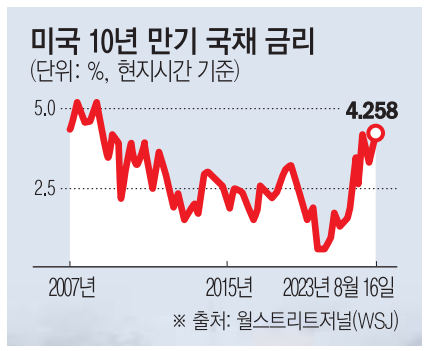
'장기금리 벤치마크' 미국채 10년물 금리 2008년 이후 최고

경제 연착륙·금융 불안정 전망 공존
前 미국 재무 "4.75% 이상 뛸 수도"

글로벌 장기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국채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4.258%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배경에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경제지표가 잇따라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향후 6~12개월 사이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베팅을 포기하고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그만큼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른 것이다.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여기에 미 재무부가 재정적자 충당을 위해 향후 몇 달간 예상보다 더 많은 차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국채 가격 하락(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 지속도 금리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문제는 과거 국채 금리 급등이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미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1년 전 약 5%에서 6.96%로 뛴 상태다.

일각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장기 국채금리가 정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향후 10년간 국채 10년물 금리가 평균 4.75% 정도를 보이거나 그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올해 국토위 국감장 달굴 것"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 분석
개발이익환수제 완화 여부 논의
철근 누락 LH 혁신안 후속책도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편과 청약제도 개선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제도 개편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점검 등 올해 주요 사건·사고 후속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선 22개 주요 과제가 선정됐다. 이 보고서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주요 정책 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국회 국감 준비의 주요 자료로 이용된다.

올해 선정 주제 중 눈에 띄는 분야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개발이익환수제 개선 △전세사기 발생 원인과 대책 △주택 청약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공시가격 제도 개편은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다. 전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세 급등에 따른 공시가 인상, 이에 따른 세 부담 폭증 등으로 이번 정부에선 공시가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

이번 국감에선 공시가격 점진적 인하를 위한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세부안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을 적용했다. 내년도 이후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미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14일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2024년 이후 현실화율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 ※ 출처: 국회 입법조사처

주제	주요 내용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 공시가격 객관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검증절차 법제화 – 현실화율 적용 방안 검토
개발이익환수제 개선	– 개발부담금 징수율 상향안 논의
전세사기 발생 원인과 대책	– 일정 가구 수 이상 보유 주택 소유자의 임대사업등록 의무화
주택 청약제도 개선	– 청약가점제 개선안 논의 – 부적격자 방지 사전 검증절차 마련 등

개발이익환수제 개편도 논의 대상이다.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사업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정상 땅값 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시행자나 땅 주인이 얻는 차익을 환수하는 법이다. 정부는 최근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을 높이는 완화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33년간 부과 대비 징수율은 73% 수준으로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실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청약제도 개편도 논의된다. 1인 가구 증가와 청년 주거지원 필요성 등이 맞물려 기존 가점제(점수제) 개편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신설안으로는 소득 수준을 청약 가점 기준에 추가하는 '비자발적·자발적' 무주택자 구분과 소형주택 추첨제 비율 확대, 부양가족 수 항목의 배점 하향 조정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올해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놓은 전세사기와 LH 보강 철근 누락 사태 후속책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정부 대응책 시행과 함께 일정 가구 수 이상 보유한 주택소유자의 임대사업등록 의무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최근 LH 보강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이 불거진 만큼 LH 혁신안 논의도 재차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LH는 국감에서 임직원 비위행위 방지를 주제로 2020년 이후 매년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점검'과 '직무 윤리 강화' 등을 지적받았다. LH의 국정감사 시정 요청 건수는 2020년 66건에서 2021년 100건, 2022년 20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시가격 논의는 집값 통제를 위해 올리거나 내리기보다는 과세 기준인 만큼 주택 종류별 현실화율을 균등하게 맞추는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제대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청약제도 개편 역시 유형과 가점제 세부화보다는 추첨제 확대를 중심으로 단순화해 청약 희망자 간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 2340가구로 통합재건축

서울시, 신통기획 확정

서울시 강남구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 아파트가 통합재건축을 통해 수변과 녹지가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사진〉로 거듭난다.

17일 서울시는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 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아파트는 1984년 준공됐다. 현대1차 아파트가 2017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와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맞닿은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와 하나의 단지로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50층 내외, 약 2340가구 규모의 양재천을 품은 친환경 수변 특화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통합재건축을 고려한 기반시설과 건축계획 수립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보행중심 단지 조성 △양재천을 품은 친환경 열린 단지 등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우선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m) 및 공공보행통로를 만들고 주변 단지와 연계해 양재천~대모산까지 이어지는 개포지구의 통경·보행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공공보행통로 초입에는 공원을 배치해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개포로를 중심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상지 내 학교의 통학환경을 고려해 3개 단지 간 서로 연결되는 보행 동선도 마련한다.

신속통합기획안에는 양재천 북쪽 도곡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계획도 담겼다. 기획안은 양재천변의 60m 구간을 수변 특화 배치구간으로 계획해 양재천변으로 친환경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개방형 도서관, 휴식 공간, 게스트하우스, 키즈카페 등을 도입해 천변 거리를 활성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보규 기자 jbk@

올해 청약자 73% '10대 건설사' 분양단지 몰렸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곳의 분양 단지에 전국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청약자 10명 중 7명은 10대 건설사 브랜드를 택한 만큼, 하반기에도 주요 건설사 분양 단지의 강세가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 2023년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대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이들 10대 건설사가 분양 단지는 청약시장에서 강세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7월) 전국에서 10대 건설사가 분양한 단지는 39곳(컨소시엄 포함)으로 1순위 청약에 총 26만3082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체 1순위 청약접수 건수(35만9023건)의 약 73.3%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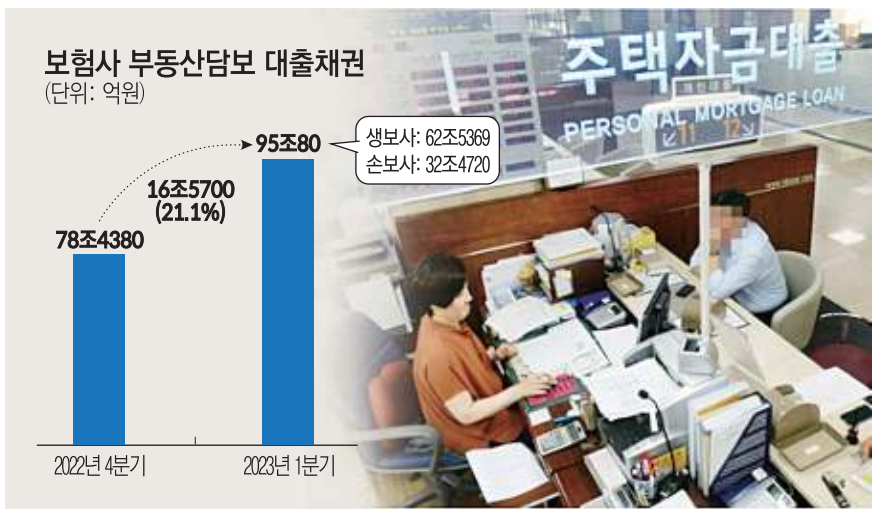
청약 마감률 역시 건설사 순위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같은 기간 10대 건설사 분양 단지 중 약 76.9%가 1순위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웠다. 하지만, 그 외 건설사 분양 단지 중 1순위 모집 가구 수를 채운 단지는 전체의 약 38.9%에 불과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50년 주담대’ 규제 시동… 보험사까지 사정권

가계대출 고삐 죄는 금융당국

생명·손보협회 판매 현황조사
한화생명 이어 삼성도 시장 동참
34세 미만 연령제한 조건 출시
당국 압박에 주담대영업 ‘빨간불’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연령 제한을 검토하는 등 가계대출 고삐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보험권도 사정권에 들어왔다. 보험사들은 시중은행 대비 낮은 규제로 주담대 시장을 키워오며 50년 만기 시장에 진출했지만 당국의 압박 변수에 막혀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전날 각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주담대 상품 판매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올해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의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등 초장기 주담대가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전 은행권에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계획하자 보험권도 관련 상품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50년 만기 상품은 가장 처음에 출시한 한화생명에 이어 지난주 삼성생명도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50년 만기 상품은 신한은행과 같이 만 34세 미만 연령제한 조건이 있고, 판매 실적도 미미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공격적으로 홍보한 것도 아니었고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려주는 차원”이라며 “향후 당국 방향성에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성장하던 보험사 주담대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5월부터 초장기 주담대 시장에 뛰어들며 관련 시장을 키워왔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생·손보사들의 부동산담보대출채권 규모는 95조80억 원으로, 작년 말(78조4380억 원) 대비 21.1%(16조5700억 원) 급증했다. 업권별로는 전체 생보사가 62조5369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보유했다. 손보사는 32조4720억 원 수준이다.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는 소비자가 늘어난 배경은 시중은행 대비 낮은 규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행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 적용받지만, 보험사들은 5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매년 갚는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보험업 등 제2 금융권은 50%로 더 넉넉하다.

이에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이어 한화생명이 올해 처음으로 50년 상품을 선보였고 삼성생명도 뛰어든 것이다. 경쟁사들도 만기를 늘린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지만, 판매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험사의 선제적인 축소도 예상된다. 은행권 주담대 시장이 경직될 경우 2금융권 내 보험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금조달 비용 증가에 따른 역마진 우려와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주담대 시장 에서 공격적인 영업도 힘든 상황”이라며 “은행권과 함께 보험사 장기 주담대 상품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보험 오래 유지하면 연금 더 많이 받아요”

삼성생명 ‘연금보험 플러스’ 출시

삼성생명은 연금보험 상품 규제 완화에 맞춰 장기 유지시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삼성 연금보험 플러스(무배당)’를 1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6월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중도환급률 규제’가 완화된 이후 출시된 삼성생명 첫 연금상품이다. 그동안 연금보험은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중도환급률 규제’를 저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받아 장기간 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에게 혜택을 주도록 설계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금을 오래 유지할수록 수령하는 연금액이 높은 형태로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삼성 연금보험 플러스’는 중도환급률을 낮춘 대신 계약을 길게 유지할수록 유지보너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강화형’과 기존의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하여 설계된 ‘기본형’ 두가지로 운영된다. 가입기간과 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연금개시까지의 유지기간과 납입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더 많은 유지보너스 금액이 가산돼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적립형(월납)의 경우 납입기간 경과시점(단, 10년납 미만은 10년 경과시점)에도 유지보너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지연 기자 sjy@

〈작년 1인당 평균〉

퇴직금이 5.4억… 30대 은행원도 줄줄이 짐싼다

신한銀 한해에 2차례 희망퇴직
내주 초까지 39세이상 신청받아
하나銀 40세이상 60명 은행떠나
“조건 좋을 때…” 조기은퇴 급증

‘은행=철밥통’도 옛말이 됐다. 자발적으로 짐을 싸는 은행원들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희망퇴직 조건이 좋을 때 조기 은퇴해 ‘인생 2막’을 설계하려는 젊은 층이 늘면서 30대 희망퇴직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통상 은행권은 연말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연초에 희망퇴직을 진행하는데, 신한은행은 연초와 별도로 하반기에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한 해에 두 차례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2021년 이후 2년 만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희망퇴직 대상 연령대가 대폭 낮아졌다는 점이다. 하반기 신한은행의 희망퇴직 대상은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1983년 이전 출생 직원으로, 만 39세까지 퇴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올해 1월 신한은행 희망퇴직에서 최고 출생연도 조건이 1978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개월여 사이 대상 연령이 5년 낮아졌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하반기 희망퇴직을 마무리했다.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60명이 은행을 떠났다.

주요 은행의 희망퇴직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우리은행의 경우, 2021년 1974년생에서 2023년 1980년생으로 2년 새 6년 낮아졌다. 지난해부터는 희망퇴직 대상자에 관리자급(1974년생), 책임자급(1977년생)에 이어 ‘행원급’이 추가됐다. KB국민은행은 2021년 1966~1971년생에서 지난해 1968~1972년생으로 낮아졌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희망퇴직 연령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희망퇴직이 정례화돼 있지 않은 은행이 대부분인 탓에 내부 인력 상황이나 전략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을 안 받는 해가 있을 수 있어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기까지 1~2년 정도 남은 직원들의 경우, 내년에는 은행 상황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에 대상 연령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 희망퇴직 횟수를 늘리거나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역대 최고 호황 속 조건 좋을 때 떠나자’는 인식 확산이 꼽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성과급은 2020년 1조4747억 원, 2021년 1조7826억 원, 2022년 1조9595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총 퇴직금은 5억4000만 원에 달했다. 총 퇴직금은 2021년(5억1000만 원)과 비교하면 3000만 원 증가했다.

향후 퇴직 조건이 악화할 가능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희망퇴직 혜택이 줄었다. 상반기 준정년 특별퇴직금은 최대 36개월 치 월평균 급여였으나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금은 28개월로 상반기 및 작년 대비 8개월가량 축소됐다.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기타지원사항 금액도 상반기보다 줄었다.

유하영 기자 haha@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은 지난달 출시한 신상품 ‘요양실손보장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상품에 탑재된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및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에 대한 독창성, 진보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 다른 보험사는 해당 기간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미보장됐던 요양돌봄을 실손보장하는 급부이며, 치료 이후 돌봄 및 관리를 위한 요양 보장 제공 등 공적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개발됐다.

서지연 기자 sjy@

토스뱅크, 인뱅 최초 ‘햇살론뱅크’ 출시

2500만원까지…금리 최저 年6.84%

토스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햇살론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대상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후 대출을 잘 갚아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이다.

햇살론뱅크의 한도는 최소 500만 원 최대 2500만 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한도 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거치기간 1년이 선택 가능하여 필요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다.

햇살론뱅크 이용자의 인지세와 중도상환해약금은 무료이고, 보증료는 연 2%이다. 여기서 저소득 청년(2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연 0.5%, 금융교육 및 컨설팅 이수자 연 0.1% 인하 우대한다.

보증료가 포함된 대출금리는 최저 연 6.84%에서 최고 연 13.24% 수준이다. 기준금리는 금융채3개월(변동주기:3개월), 금융채6개월(변동주기:6개월), 금융채12개월(변동주기:12개월)중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기준금리의 매 변동주기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가 변동된다.

김범근 기자 nova@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어촌휴가 장려 챌린지’ 동참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어촌휴가 장려 등 어촌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신한금융은 진 회장이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챌린지 캠페인은 지난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관계 인사들과 해양수산부의 공동 제안으로 금융 취약계층인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진 회장은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의 추천을 통해 참여하게 됐다. 진 회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한성희 포스코이앤씨 대표를 후속 챌린저로 추천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지주

中침체·美금리 지뢰밭… '1220兆 기업빚' 폭탄 터지나

G2 리스크 커진 한국 경제

IMF, 한국 기업부채 부실 경고
1분기 기업신용비율 증가세
대출 잔액 80% 이상 中企에
최대 교역국 中경기불안 이어
美 기준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실적·금리부담 불러 신용위기

국내 기업들 사이에 '신용(부채)리스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와 부채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속에 미국까지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걱정이 고개를 든 탓이다. 최대 교역국(교역 비중 20.9%) 중하나인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진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살림살이는 더 빠듯해진다. 특히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빠진다면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상의 충격을 줄 수 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인상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258%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에 베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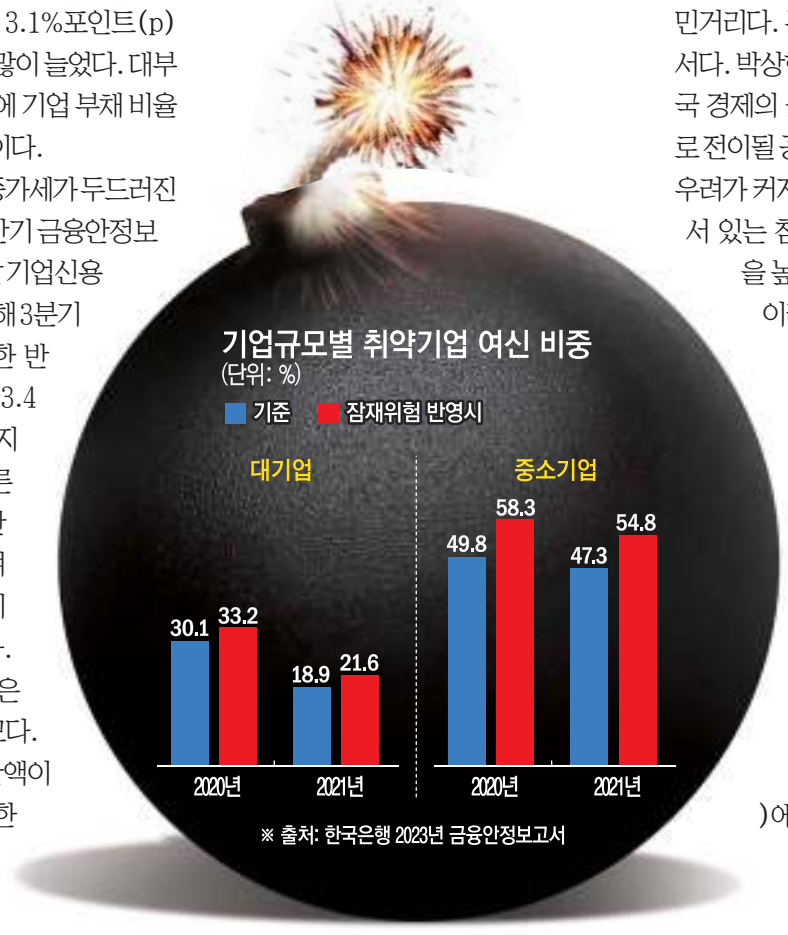
시장에서는 'G2(미·중)' 리스크가 기업 신용(부채)위험을 자극해 '투자위축 및 고용 감소→소비위축→실적악화→재무리스크 확대'라는 '디레버리징 사이클'을 만들고, 나라 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빚더미 앉은 기업들 =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부채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고금리가 지속할 경우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IMF가 한국의 기업 부채에 경고음을 울린 것은 기업 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세계 34국(유로존은 단일 지역으로 집계)을 대상으로 작성한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은 비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118.4%로 홍콩(269.0%), 중국(163.7%), 싱가포르(126.0%), 일본(118.7%)에 이어 다섯째로 높았다. 지난 1년간 기업 부채 비율이 3.1%포인트(p) 증가해 34국 중 넷째로 많이 늘었다. 대부분 국가가 긴축 기조 속에 기업 부채 비율을 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행도 기업 빚 증가세가 두드러진다고 했다.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업신용 비율은 119.7%로 지난해 3분기 말보다 1.0%p나 상승한 반면, 가계신용 비율은 103.4%로 1.4%p 하락했다. 지속된 국내외 긴축에 따른 자금 시장 경색, 부동산 리스크,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여파로 기업대출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7월 말 기업대출 잔액은 1218조7000억 원 규모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982조5000억 원에 달한다.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여건 악화, 환율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금 수요 증대 등 영향이 컸다.



치솟는 금리에 연체율도 상승했다. 1분기 말 기준 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0.35%로 지난해 3분기 말보다 0.12%p 상승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3.63%로 1.83%포인트 상승했다.

◇G2발 부채의 역습 = 눈덩이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들에 'G2' 리스크는 큰 고민거리다. 부채라는 뇌관을 건들 수 있어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제의 불안은 궁극적으로 국내 경기로 전이될 공산이 높다"면서 "부채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질서 있는 침체 리스크'가 국내 신용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연준이 금리를 이른 시일에 내릴 것이란 기대가 후퇴하면서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이 늘어난 것이다. 미국의 시장금리가 오르면 다른 국가나 국내 시장금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국내 금리는 상단(회사채 AA-, 17일 기준 4.561%)에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2023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산업별 전망'을 통해 "(금리가)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상·중반기와 비슷하다"라고 했다. 이날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3.976%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점증하는 부채(신용)위험은 시스템 위기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경제학자는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부채 축소→공급 부족→기업투자 확대→경제 성장 및 기업매출 확대→기업 부채 축소' 같은 레버리징 사이클은 사라지고 '성장 둔화 혹은 위기 발생→기업부채 증가→기업투자 위축→구조조정 지연 및 공급과잉 지속→경제성장 및 기업매출 둔화→기업부채 증가'와 같은 디레버리징 사이클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기업 투자 및 영업활동이 위축되면 그 충격은 가계로 전이된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어려움에 빠트릴 수 있다. 기업 펀더멘탈이 약화하면 글로벌 자금은 우리 증시에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유동성이 감소해 우리 주식시장마저 '좀비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BOK 경제분석: 지난 60년 경제환경변화와 한국기업 재무지표 변화'라는 논문을 통해 1971~1972년, 1980~1981년, 1997~1998년(외환위기)의 세 차례 경제위기를 언급하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가계·정부부채가 원인이 아닌 기업부채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코스피 우려할 상황 아냐… 제2 레고랜드 없다"

자본시장 정책성과·과제 간담회
"하반기 금융시장 작년보다 낙관
中부동산리스크 국내 영향 미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2 레고랜드 사태' 재현, 해외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부실 우려에 대해 "작년보다 덜 어려울 것"이라고 낙관했다. 아직 활용하지 않은 정책 수단도 많고,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제2 레고랜드 사태' 재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이 지금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상반기나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상태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발 경기 둔화 여파,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글로벌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산적해 있어 하반기 국내 시장이 작년처럼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는 "(코스피) 2500선 내외가 됐더라도 아직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이전부터도 상당히 많은 대책을 만들어 왔었는데 여태까지 만들어 온 시장 대책이 워낙 다양하고 많고, 활용 안 한 정책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국내 리스크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국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업계의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에 대한 질문에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개인투자자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개인투자자 부분은 한 3조1000억 원, 주로 공모펀드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가 손해 보는 일은 발생할 수 있지만 크게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엔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서지희 기자 jhsseo@

황준호 다올투자證 대표
마약근절 캠페인 동참

다올투자증권은 황준호(가운데) 대표이사가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이다. 황준호 대표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가로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약 근절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다올투자증권

코스피 기업 상반기 실적 '반토막'

전년比 영업익 52% 급감
의료정밀 업종 적자전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반토막났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를 비롯해 의료정밀 업종이 적자전환하는 등 다수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흑자기업은 줄고 적자기업은 증가했다.

17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89사 중 615사(연결기준)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영업이익은 53조10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57.94% 줄어든 37조6886억 원이었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 증가한 1390조54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은 3.82%, 순이익률은 2.71%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삼성전자(매출액 비중 8.9%)를 제외한 경우에도 매출액은 5.1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7.94%, 48.81%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삼성전자와 한국전력공사(매출액 비중 3%)를 모두 제외한 연결 매출액은 4.5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 38.37%, 47.14% 감소했다.

개별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장기업 704곳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소폭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4.05%, 14.97% 급감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7개 업종 가운데 운수창고업, 화학 등 12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운수창고업(-62.32%), 화학(-58.01%), 철강금속(-50.06%), 종이목재(-35.32%), 서비스업(-35.11%), 건설업(-32.28%) 등의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전기전자, 의료정밀 업종은 적자전환했다. 전기가스업은 적자지속을 나타냈다. 순이익은 13개 업종에서 줄었다.

연결기준 금융업(42사)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5.27%, 5.56% 증가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증권업과 은행업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06%, 15.72% 증가하며 실적이 개선됐다. 증권과 은행은 순이익도 각각 15.06%, 19.13% 늘었다.

상반기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의 연결부채비율은 112.69%로 전년 말 대비 0.06%포인트(p) 증가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들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12월 결산 코스닥 1112개 상장사의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36조1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5조6000억 원과 4조1000억 원으로 각각 36.1%, 41.4% 감소했다.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률은 각각 4.1%, 3.0%로 작년 상반기보다 2.7%포인트, 2.5%포인트 낮아졌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뿐인 여행의 기회!

트래블로그
100만 하나머니 지원 이벤트 [~8/31]

지금 하나머니 앱에서 트래블로그 시작하고
100만 하나머니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1 하나머니 앱에서 내 계좌를 연결한다

2 환율(Spread) 100% 우대 받고 외화 하나머니를 충전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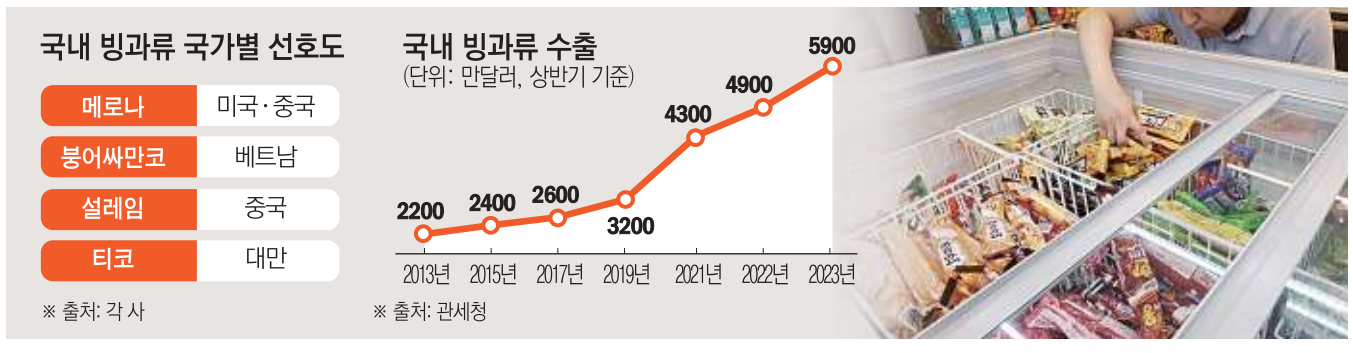
하나금융그룹

•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생명, 하나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카드 및 하나캐피탈은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상품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04541호(2023.06.30) • 하나카드 준법심의 A-23-1126 (2023.06.22~2024.05.31) • 하나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092호(2023.07.01~2023.12.31) • CC브랜드230630-0409

美 메로나·中 설레임… 세계 녹인 K아이스크림 비결은

상반기 빙과업체 수출 역대 최대
전년동기比 20% 뛴 5900만달러

메로나, 해외매출 국내 뛰어넘어
'붕어싸만코' 베트남서 인기몰이
설레임 광풍에 中서 짝퉁도 등장



지구촌이 국내 업체들이 만든 'K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국산 아이스크림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빙과업체들의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약 5900만 달러(약 791억 원)로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수출액 4900만 달러보다 20.4% 증가했다. 국가별로 미국(1900만 달러), 중국(700만 달러), 필리핀(600만 달러), 캐나다(500만 달러) 등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다. 수출 중량 기준으로도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신기록을 세웠다.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한 1만8000톤(t)이었다.

수출 선봉장은 빙그레다. 상반기 수출액 775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27% 성장한 수치다. 주력 수출품인 아이스크림 비중은 60% 수준이다. '메로나'는 이 기간 해외 매출 약 290억 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국내 매출은 220억 원 수준으로, 해외 수출액이 더 많다. 전체 아이스크림 수출에서 메로나는 36.7% 비중을 차지한다. 수출 아이스크림 3개 중 1개는 메로나인 셈이다.

메로나 최대 수출국은 미국(1900만 달러)이다. 이어 중국(12.2%), 필리핀(10.3%), 캐나다(8.4%), 베트남(5.1%) 등 순이다. 올 상반기 메로나를 수출한 국가는 총 49개국이다. 메로나가 이처럼 지구촌 각국의 입맛을 사로 잡은 것은 빙그레만이 구현한 차별화된 맛에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기존 아이스크림들은 진하고 투박한 맛이 대다수인데, 메로나는 쫀득하고 청량한 과일 맛으로 새로움을 선사한다"며 "현지에 없는 맛이다 보니 한국 교민들에게서 먼저 인기를 끌었고, 입소문을 타고 미국인들 입맛까지 사로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빙그레의 스테디셀러 '붕어싸만코'는 베트남에서 인기가 높다. 빙그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붕어싸만코 베트남 매출은 2020년과 비교해 65.6% 급증했다. 붕어싸만코는 현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물고기 모양으로 인기를 얻고 있나는 분석이다. 여기에 아이돌 등 한류 열풍까지 더해져 현지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 빙그레 측 설명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메로나는 각 국가별로 선호하는 입맛에 맞춰 딸기, 망고, 코코넛, 타로, 피스타치오 등으로 다양화 했고, 집에서 퍼먹는 홈사이즈 신제품도 출시했다"며 "K콘텐츠 확산에 한국 제품 인지도와 이미지가 상승한 점이 베트남 등에서 매출이 늘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롯데웰푸드도 미국, 중국, 대만 등 국가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다. 전체 수출 실적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회사 측은 빙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인도법인 '하브모어'의 상반기 실적이 988억 원으로 전년 동기(913억 원) 대비 8.2%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제품 선호도를 보면, '설레임'은 중국에서 티코는 대만 등 중화권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콘'은 인도에서 잘 팔린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설레임의 경우 짝퉁 제품이 등장할 정도로 중국 현지에서 엄청난 인기"라며 "중국을 포함해 빙과류 해외 수출 실적은 매년 성장세"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kjy42@

신세계, CJ 신제품 단독 선출시… '反쿠팡' 연합 굳히기

2개월 앞서 신제품 13종 우선 판매
6월 파트너십 맺은 후 첫 합작 행보
"쿠팡 외 유통 채널 다각화 움직임"

CJ제일제당이 신세계그룹 유통채널에서 2개월 먼저 신제품을 선보이며 이커머스에 대항하는 업계 공조가 본격화됐다. 신세계그룹과 CJ제일제당은 공동상품까지 내놓을 예정으로 '쿠팡·CJ제일제당 납품가' 갈등에 따른 '반(反)쿠팡 연합' 전선이 공고해질 전망이다.

신세계그룹과 CJ제일제당은 이마트 매장, SSG닷컴, G마켓 온라인몰 등 신세계그룹 쇼핑채널에서 CJ제일제당의 신제품 13종을 먼저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제품은 비비고 납작교자, 햇반 컵반 등 가정간편식과 비비고 떡볶이·붕어빵 등이다. 다른 유통 경쟁사보다 두 달 먼저 선보이는 것으로, 양사가 지난 6월 파트너십을 맺은 후 첫 합작 행보다.

양사는 신제품 선출시에 맞춰 온·오프라인에서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선다. 이마트는 이달 30일까지 연수점, 목동점 등 전국 10개 매장에서 전용 팝업스토어를 열고 경품 이벤트를 펼친다. G마켓은 18일 라이브방송 'G라이브'에서 CJ제일제당 제품 론칭쇼를 진행한다. 특히 양사는 연내 만두, 국물요리, 밀키트 등 공동개발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협업은 신세계그룹이 6월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공개 간담회 당시 공언한 바다. 당시 신세계그룹은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등 협력 업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제조사와 납품가격 갈등 중인 쿠팡을 직격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강희석 이마트 대표는 당시 간담회에서 "대형 브랜드사·중소 판매자 모두가 상생의 관점에서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신세계그룹은 작년부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유한킴벌리, 애경 등 제조사와 선론칭 협업을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과의 협업이 주목 받는 건 두 업체와 쿠팡이 납품 단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11월 쿠팡으로부터 햇반, 비비고 등 주요 상품 발주 중단 통보를 받았고 9개월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쿠팡과 4년째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사실상 쿠팡과 손절한 CJ제일제당의 손을 잡는 유통 채널이 늘면서 '반쿠팡 연합전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커머스 업체 중 컬리가 CJ제일제당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컬리는 CJ제일제당과 공동 기획한 '골든퀸쌀밥'의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컬리 외에 11번가도 LG전자·CJ제일제당과 협업한 행사를 올해 두 차례 열었다. 최근엔 롯데온이 CJ제일제당 상품만 판매하는 '원브랜드 행사'를 진행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CJ제일제당 입장에선 쿠팡 외에 유통채널을 다각화해 매출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건강한 가루쌀빵 맛보러 '빵지순례' 오세요" 신세계백화점은 쌀의 날을 맞아 '가루쌀과 함께하는 건강한 빵지순례' 팝업스토어를 19일까지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제과 명장, 지역 명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유명 베이커리 19개 업체가 개발한 '가루쌀빵' 총 45개 제품을 팝업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노재팬 식자 살아난 日맥주… 긴장하는 국내 주류시장

日맥주 수입 작년 동월比 239%↑
하이트진로·롯데칠성 영업익 감소

일본 맥주 수입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국내 맥주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업체들은 당장 매출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경쟁 격화에 대한 우려는 내비쳤다.

17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239% 증가한 7985톤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00년 이후 동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소매시장에서도 일본 맥주 소비는 큰 폭으로 신장했다. 편의점 CU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일본 맥주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6.7% 늘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노재팬(No Japan)'이 시작된 직후인 2019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455.7% 증가한 규모다.

업계는 노재팬은 4년 전 일이고, 윤석열 정부의 우호적인 일본과 외교관계에 이어 최근 엔데믹으로 일본 여행이 늘면서 일본 맥주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일본 맥주 수요 증가는 불매운동 영향이 줄어든 탓도 있고, 구매를 망설였던 사람들이 늘어난 수요에 편승해 폭발적으로 구매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맥주 상승세에 국내 맥주업계엔 위기감이 감지된다. 하이트진로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6415억 원, 영업이익이 1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9%, 80.9% 줄었다. 롯데칠성 주류 부문의 경우 매출액은 5.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3억 원으로 75.8% 급감했다.

수제맥주로 범위를 좁히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주맥주의 올해 1분기 매출은 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4% 줄었고, 영업손실은 약 21억 원으로 작년 1분기 15억 원보다 늘었다. 일본 맥주 수요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내 업계는 일본 맥주 수요가 늘더라도 노재팬 이전의 아성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최근 주류 트렌드가 바뀌어서다. 수입 맥주 종류도 늘었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를 가미한 하이볼과 와인의 인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구예지 기자 sunrise@

롯데칠성 '친환경 재활용페트'로 ESG 앞장

'아이시스8.0 ECO 1.5ℓ' 선봬
재활용 등급 어려움→우수로

롯데칠성음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목표로 ESG경영활동에 힘쓰고 있다. 2021년 8월 '롯데칠성음료 ESG 위원회' 설립을 시작으로 친환경 공급망 구축,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탄소중립 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이달부터 맥주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1.6리터(ℓ) 대용량에 투명 페트를 적용한다. 페트병 분리 배출을 쉽게 만들어 재활용 등급을 '어려움'에서 '우수'로 개선했다. 올해 4월엔 국내 최초 재활용 페트 '아이시스8.0 ECO' 1.5리터를 선보였다. 식품 용기로 사용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보틀 투 보틀' 방식의 재활용 기술을 적용했다.

아이시스8.0 ECO 재활용페트는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를 플라스틱 재질에서 페트만 선별해 골라낸 후, 재활용 공정을 거쳐 플라스틱 원료와 혼합해 새 플라스틱 용기로 재탄생한다.

롯데칠성음료는 국내 식음료 업계 최초로 2021년 '글로벌 RE100'에 가입했다. 회사는 2040년까지 음료와 주류 생산공장, 물류센터 등에 사용되는 전력량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RE100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작년 초 멸종위기 해양동물의 보호와 관심 증대를 위해 '리멤버 미 캠페인'을 실시하고,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성실화랑'과 손잡고 '아이시스8.0x성실화랑 에디션'을 내놨다. 이 에디션은 아이시스8.0 생수 브랜드를 통해 멸종위기 동물보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기획됐다.

문현호 기자 m2h@

수업방해 학생에 "교실서 나가" 가능… 휴대전화 압수도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

분리 땐 교장·학부모에 알려야
난동 피우면 물리적으로 제지
반성문 작성도… 체벌금지 유효
보호자 상담 반드시 사전 협의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난동을 피우는 학생의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훈육 방법으로 반성문 쓰기를 시킬 수도 있다. 다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주호〈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내용을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식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수업 방해 학생의 경우 교실 안이나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교원이 학생을 분리 조치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분리된 학생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누가 인솔할지 등 세부 사항은 학교가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휴대전화를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교사가 훈육과정에서 긴급한 경우,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어 교사가 대처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제지 행동이 가능해진다. 훈육에도 불구하고 잘못을깨닫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으로 인정되는 과제를 부여할 수 있고,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를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합의되지 않거나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한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됐던 소지품 조사도 가능해진다.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이나 상을 줄 수도 있다.

이번 고시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일부 내용과 상충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지자체에게 시정, 정비를 권고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고시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하며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고시안과 관련 교권과 학습권 보호의 계기가 됐다는 입장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통해 "이번 교육부 고시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이번 고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 △지도 불응 및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인계 △교육부와 교육청 지원 책무 명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한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면책하는 법 개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손현경 기자 son89@·정유정 기자 oiljung@

이달 말까지 폭염 내달 중순께 선선

가을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입추(立秋)가 지났음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선선한 가을바람은 다음달 중순께서야 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달 말까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특보 수준의 무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예보됐다.

입추가 열흘이나 지났고, 태풍 '카눈'도 한반도에서 물러갔지만 무더위로 인한 피해는 계속해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는 광복절인 지난 화요일까지 모두 2335명이며, 추정 사망자는 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적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23명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무더위는 9월 중순께 사그라질 전망이다. 기상청의 1개월 전망 자료에 따르면 다음 달 초순까지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음달 중순에서야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낮아진다.

특히 8월 마지막 주부터 9월 둘째 주까지도 한반도 전체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든다. 이는 우리나라에 더운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9월 셋째 주인 11일부터는 한반도 전체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며 더위가 차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열대 태평양 중부의 해수면 온도보다 높은 경우가 9월까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네 번째 검찰 출석한 이재명 "비회기때 구속영장 청구하라"

'백현동 특혜 의혹' 검찰 출석
"정권 무도한 폭력 심판받을 것"
檢, 민주당 동시다발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라고 비판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등으로 이 대표를 3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 읽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저를 희생재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모든 게 저의 부족함으로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너무도 무겁게 어깨를 짓누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시라.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도 반드시 심판받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말도 안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며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를 배제하고 민간 개발업체 등에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당시 '성남시 2인자'로 불리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가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소환에 앞서 민주당을 겨냥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비서인 양모 씨를 압수수색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김이현 기자 spes@

法 "아시아나,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LSG "부당하게 계약 파기" 소송

기내식 공급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미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182억여 원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LSG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82억여 원 및 관련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740억 원 대 규모의 반소(맞소송)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LSG는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했다. 하지만 2018년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를 게이트그룹과 합작으로 세운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LSG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게이트그룹은 금호홀딩스의 1600억 원 규모의 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LSG 측은 "기내식 공급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됐다"며 "2015년부터 3년여간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오히려 LSG가 과도하게 기내식 비용을 청구해 왔다"며 740억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석주 기자 ssp@

투자부터 특수영역까지 자문…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

BARUN LAW 법무법인(유한) 바른

⑨ 법무법인 '바른'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주요 변호사들이 1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에 앞서 한자리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한태영 변호사, 오희정 미국 변호사, 팀장을 맡고 있는 최진숙 변호사, 정경호·최재웅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김준영·최진혁·조은주·박현진·강보람·김소연·조서진·이성준·송예나 변호사, 이상찬 외국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유한) 바른

수조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펀드 사태'와 맞물린 2020년 10월 국정감사 때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이 가장 큰 사회 이슈였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서도 해외 투자금 대부분이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곳에 투자됐다는 의혹마저 불거지며 사모펀드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판박이' 부실 투자 징후가 끊임없이 포착됐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함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까지 당시 국감 3대 사고 펀드를 모두 법률 자문한 로펌이 있다. 바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다. 이 때 금융당국은 국내 사모펀드 1700여 개를 전수조사하는데, 펀드 실사를 맡은 삼일 회계법인이 법률 지원 파트너로 바른을 선택한 일이 계기가 됐다.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사모펀드 관련 법률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바른은 20년 넘게 줄곧 금융 분야 한 우물만 파온 1세대 금융 전문 변호사 최진숙(사법연수원 28기) 팀장을 필두로 기업법무그룹 구성원인 정경호(연수원 32기)·최재웅(38기) 변호사 등을 포진시켜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을 신설했다. 자문팀은 펀드의 부실 징후를 포착해 회수 할 것을 자문하는 등 투자 전반을 자문하고 있다.

김소연(40기)·한태영(41기)·조은주(변호사시험 1회)·최진혁(변시 2회) 변호사 등 젊은 파트너 변호사들이 가세하면서 전통적인 투자자문업 외에 스타트업, 일본, 실리콘밸리, 블록체인 등 특수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했다.

◇'펀드 사태' 터지며 자문수요 폭증= 최재웅 변호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라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영국 자산에 투자하는 일명 'UK 펀드', 호주 무역금융 채권에 대한 투자 등 근래 금융권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던 거의 모든 펀드들을 자문했고 지금도 다양한 펀드들을 자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3년 동안 바른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이 자문한 펀드의 설정액을 전부 합치면 1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수 부실 사모펀드들의 실사와 자문을 수행한 최재웅 변호사는 중국을 비롯해 이머징 마켓(신흥시장) 투자를 자문하고 있다.

아울러 홍콩의 중국화가 진전되면서 글로벌 자금들이 싱가포르를 경유해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싱가포르 지사를 책임지는 오희정 미국(뉴욕 주) 변호사는 글로벌 자금의 한국 내 투자와 한국 자본의 해외 진출 등을 돕고 있다.

바른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은 △부동산금융 △해외부동산 투자 △해외 자원개발 등 대체투자 자문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변호사, 통·번역사, 각 지역별·산업별 전문위원, 담당 변호사 감독 아래 법적 전문 기술을 활용하는 준법률가(Paralegal)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원자재, 선박 등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방식을 뜻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가의 전통적 투자 대상인 주식·채권 값이 급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시장 영향을 덜 받는 이들 자산에 투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대체투자 회수 업무는 말처럼 쉽지 않다. 국제 중재, 매각 주선, 보험금 청구, 국내 기관들끼리의 분쟁, 담보권 실행 또는 저지, 만기 연장을 통한 연착륙 지원 등 복잡한 형태로 진행된다.

최 변호사는 한 자산운용사가 미국 소재 호텔을 인수하려다 실패해 적지 않은 계약금을 날리게 되자, 그 계약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놓고 국내 자산운용회사와 증권회사(판매회사) 사이 기관쟁송이 비화한 케이스를 거론했다. 그는 "바른은 항소심부터 자산운용사를 대리했는데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를 했다"며 "펀드 설정 전 계약에 있어 해외 투자 시 국내기관 간 계약금 분담에 관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상기했다.

◇해외 부동산펀드 6년새 3배…"후순위 투자 부실 우려"= 최근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이 주도한 2800억 원 규모 홍콩 오피스 투자 건은 전액 손실 가능성이 대두된다. 독일과 미국·벨기에 등에 투자한 부동산 또한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조성된 해외 부동산 펀드는 2017년 7월 말 기준 약 25조8000억 원에서 지난달 말 77조500억 원 수준으로 6년 새 3배나 불어났다. 전체 부동산 펀드 운용규모(AUM·설정원본과 계약금액 합계)는 155조31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만기도래 펀드만 9조 원에 달해 추가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경호 변호사는 "해외 부동산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중·후순위 담보권자(저당권)로 투자한 경우가 많다"며 "시장상황 호전을 노려보기 위해서는 선순위 대주와의 만기 연장 협상이 필수적"이라고 충고했다. 평판(레퍼런스) 좋은 현지 금융·법률·회계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이 중요한 이유다.

바른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은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미국 로펌 블랭크 롬(Blank Rome LLP)과 공동으로 협상을 진행한 끝에 만기 연장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 블랭크 롬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 14개 지역에 65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이다.

정 변호사는 "해외에 투자된 대체투자 대상물의 회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 법무법인은 물론 부동산 컨설팅업체 콜리어스(Colliers) 이외 회계법인 등 많은 국가의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를 쌓은 것이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주요 구성원

-최진숙(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주택보증보험공사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사업자문위원회 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문 변호사·법률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우정사업본부 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정경호(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자원개발협회 자원개발 자산운용 전문가 과정 수료,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

-최재웅(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도로공사 법률 고문 변호사

-오희정(미국 뉴욕 주) 외국 변호사
싱가포르 Quahe Woo & Palmer LLC 파견, 법무법인(유한) 바른 싱가포르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라임·옵티머스·伊헬스케어 등 국감 '3대 펀드사고' 법률 자문

각 분야 전문성 갖춘 20여명 원팀 기관 분쟁·담보권 실행 등 지원

"해외 부동산펀드 6년새 3배 증가 국내기관, 중·후순위 담보권 많아 전문가와 만기연장 등 협력 필수"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 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최진숙 팀장

"변호사,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인데 금융사고 회피 급급… 안타까워"

"(부실 펀드에 투자한) 고객 수요를 먼저 파악해 수요를 유형화하고 집적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단계에 맞는 자문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팀장을 맡고 있는 최진숙(사법연수원 28기·사진) 변호사는 1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문제가 생긴 투자에서 최대한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투자 단계에서 과실이나 기망은 없었는지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에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지 등 고객군마다, 단계마다 원하는 수요가 다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변호사는 "팀 명칭에 '회수'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팀원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자문하는 변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에 워낙 대체투자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 회수에도 좀 더 무게를 실어보자고 젊은 파트너들이 모인 것이 계기가 돼 팀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되던 시기에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산전수전을 겪은 금융 전문 변호사다.

그는 "무역금융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설계됐는데 자산운용사는 채권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채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보니 특정 무역금융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규칙을 따라 들어가니 뜻밖에도 소멸시효가 매우 단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다급하게 단기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권회수 노력을 개시하라고 조언했다"고 과거 펀드 자문 기억을 떠올렸다.

최 변호사는 "부실 펀드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보상 문제와 별개로 판매사는 추후에 자산운용회사에 피해금액 분담을 요구하면서 구상금 소송에 나서게 된다"며 "손실 확정 문제와 연결되며 기관 쟁송이 벌어지고 소송은 장기화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사모펀드 대표 등 관련자들에 관한 수사당국의 사법처리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끝나며 수 년 전 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으나,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판매사와 운용사 간 소송이 여전히 현재 진행 형이다.

최 변호사는 "이런 문제 상황을 경험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본 변호사들은 크게 성장하게 된다"며 "금융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보단 일단 문제를 피하기 급급한 우리 금융권 현실에서는 금융사고에 대한 인력 및 노하우를 축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아쉬워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바람도 쉬어가는 길목… 두부 먹고 순한 힐링 즐기세요”

콩밭·자연 어우러진 ‘짚신 마을’ 완주 싱그랭이 마을

과거 보러 갈 때 해진 짚신을 걸어놓는 풍습
‘신거렁이’가 콩밭 마을 싱그랭이의 유래 돼

숲속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볼 수 있는 곳, 완주 경천면 싱그랭이 요동마을로 떠난다. 자연이 일상의 휴식 공간이 되어주는 싱그랭이 마을, 산속 가득 서늘한 바람이 쉬어가는 고적한 절집 화암사와 자연 생태 환경의 싱그랭이 에코 정원, 그리고 마을 주변으로 너른 콩밭이 펼쳐진 완주 싱그랭이 요동마을에서 순한 힐링의 시간을 맞이한다.

마을 입구에 들자마자 오래된 노거수가 대뜸 마을의 역사를 알려주는 듯하다. 500년 넘도록 마을의 수호신으로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켜온 느티나무다. 마침 마을에서 만난 홍성태 싱그랭이 영농조합 이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싱그랭이 요동(堯洞)마을은 그 옛날 전라도 지역에서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갈 때 잠시 쉬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장승길 옆으로 서 있는 커다란 시무나무는 표시목입니다. 여기에 돌 하나 던져놓고 ‘발병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나그네가 잠시 쉬었다 떠나는 곳으로, 새 짚신으로 갈아 신고 헤진 짚신 하나 고을 어귀 나무에 걸어놓고 가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거(新巨)렁이 마을이란 이름으로 불렸죠. 그런데 신거마을을 지역 방언 등의 이유로 편안하게 부르는 대로 쓸까 어쩔까 투표를 했어요. 15년 전이죠. 그때 마을 주민들이 정감 있고 부드러운 어감의 싱그랭이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싱그랭이 마을은 사방으로 콩밭이다.

“저기 콩밭에서 새를 지키는 아주머니가 보이네요. 주변의 모든 밭이 콩밭이라고 보면 됩니다. 옛날부터 콩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수매가 줄고 콩값이 반 토막이 되기도 했고 판로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작게나마 두부 공장을 해보자 의견을 모아 매일 두부 만들어내기에 이른 겁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콩밭식당은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조법으로 재배한 두부 요리 전문점이다. 천연 간수를 사용해 조금 거친 듯 고소한 두부로 만든 들깨순두부와 두부전골 등의 두부 요리가 일품이다. 소박한 밥상인 듯하지만 반찬 하나하나까지 모두 손끝 여문 솜씨로 정갈하고 맛깔나다.

소담한 두부맛 일품 ‘콩밭식당’서 배 채우고
‘에코정원’의 제철 야생화 한 바퀴 둘러보면
잘 늙은 절집 ‘화암사’ 수수함 느낄 시간이죠

● 싱그랭이 에코 정원의 자연 생태

마을의 느티나무와 콩밭길을 지나 화암사로 가는 길의 ‘싱그랭이 에코 정원’에서 잠깐 멈췄다. 완주의 생태 활동은 이곳 요동마을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아늑한 산 아래 야생화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싱그랭이 에코 정원 앞마당엔 제철 맞은 꽃들이 지천이다.

마을의 자연 생태와 역사 문화 보존을 위해 마련된 곳, 또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는 싱그랭이 에코 정원은 지속 발전이 가능한 자연을 가꾸어나가기 위한 공간이다. 150여 종의 야생화와 복수초, 댑싸리 등이 자라고 있다. 요동마을이 있는 경천면은 완주의 북쪽 지역인데 복수초 군락지이기도 하다. 이곳에선 전문성을 지닌 에코 매니저의 친절한 설명과 안내에 따라 식물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자연 소재를 이용한 석부작(石附作) 만들기 등의 생태 체험도 가능하다.

싱그랭이 에코 정원은 주변 들판과 언덕에서 자라는 야생화가 자연스럽다. 정원 양옆으로 자리 잡은 두 개의 온실은 천장까지 온통 유리로 둘러싸였다. 자그마한 다육이와 꽃을 피운 화분들, 그리고 풀인 듯 자연스러운 식물들과 다양한 모양의 석부작들이 가득하다. 다른 쪽 공간은 씨를 파종하여 키워내는 육묘장이다.

“초반엔 여러 가지 종을 키웠는데 이제는 몇 가지로 압축해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다알리아가 꽃을 피웠는데, 서리 내릴 때까지 이어지는 데다 번식력도 좋아 구근을 키워서 심었어요. 하지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재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채취 가공하고 방향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죠.”

완주 ‘싱그랭이 마을’ 즐길거리

불명산 화암사 전북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길

싱그랭이 에코정원 전북 완주군 경천면 경가천길74

싱그랭이 요동마을 ‘콩밭식당’ 전북 완주군 경천면 경가천길

● 잘 늙은 절집, 느린 발걸음으로 화암사

완주의 싱그랭이 마을에 간다면 가장 먼저 화암사 절집을 갈 생각에 설렌다. 싱그랭이 요동마을이 화암사가 있는 불명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을을 거쳐야만 갈 수 있다. 화암사는 산속에 숨어 있다고 할 만큼 유난스러움 하나 없이 숲속 깊이 파묻혀 있다. 규모도 소박하다. 단청의 화려함 같은 것도 없다. 수수함에 먼저 마음이 당기는 절집이다.

불명산 화암사에는 신라 왕의 꿈속에서 부처님이 던져준 연꽃으로 딸 연화 공주의 병을 고쳤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그 연꽃이 한겨울 완주 깊은 산봉우리에 피어 있었다고 한다. 불심이 깊어진 왕이 연꽃이 있던 자리에 화암사(花岩寺)라는 절을 세웠다는 이야기다.

싱그랭이 에코 정원에서 마을길을 지나 산을 오르다 보면 가벼운 등산 코스처럼 이어진다. 주차장에서 입구의 연화 공주 정원 숲길은 1km 남짓으로 완만하다. 여기선 느린 발걸음이 어울린다. 산책하듯이 천천히 걷다 보면 불명산 숲길의 운치에 반하고 만다.

이끼가 덮인 바위 절벽에 절집이 앉혀 있어서 우선 놀랄 수밖에. 그러나 천천히 돌아보니 안도현 시인의 말처럼 ‘잘 늙은 절’이란 말이 떠오른다. 불명산 화암사라는 현판이 걸린 보물 제662호 누각 우화루 누마루에 걸린 목어의 나무 질이 한참 나이 먹어 잘 늙은 절과 제대로 어우러진다. 절 마당을 중심으로 자리한 극락전, 적묵당, 우화루가 기품 있다.

구름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아예 구름 속에 주춧돌을 놓은/ 잘 늙은 절 한 채/ 그 절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순간/ 그 절집 형체도 이름도 없어지고/ 구름의 어깨를 치고 가는 불명산 능선 한 자락 같은/ 참회가 가슴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을에서 온 햇볕이/ 화암사 안마당에 먼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화암사, 내 사랑’이란 시에서 ‘찾아가는 길을 굳이 알려주지는 않으렵니다’ 하면서 끝을 맺는다.

글/ 이현숙 여행작가 bravo@
사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Shinhan

고객과
상생하는 금융
신한금융그룹이 있습니다

고객이 어려울 때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모두가 힘을 모아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상생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신한의 상생금융
신한 꿈도담터 보러가기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A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네이버 '프로젝트 꽃' 본격 色입히기 나선 최수연

'플랫폼 소셜임팩트' 두번째 토론
"일정기간 솔루션 참여 기회 제공
중소상공인 AI 이해력 높여야"
첫번째 토론 후 사무국도 신설
앰배서더 직원 현장 경험 공유

최수연(가운데) 네이버 대표가 '프로젝트 꽃' 임팩트 토론에 참석해 앰배서더 직원들과 중소상공인(SME)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네이버

"SME(중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솔루션 운영 비용을 비롯한 사업 리소스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SME의 AI' 리터러시(이해력)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17일 플랫폼 소셜 임팩트에 관심 있는 직원들로 구성된 '꽃 앰배서더'와 두번째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첫번째 프로젝트 꽃 토론 이후 다양한 SME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프로젝트꽃 사무국을 신설했다. 이에 프로젝트 꽃 앰배서더를 구축해 SME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해왔다. 직원들의 참여 확대, SME들의 브랜드화 등 지난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지원안을 구체화한 결과다. 이번 행사에서는 SME와 만난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앰배서더 직원들이 SME를 직접 만나고 현장을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업무와 프로젝트 꽃을 접목하고 있는 사례들을 공개했다. 커머스솔루션마켓 담당자는 SME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일정 기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김소연 커머스솔루션마켓 기획자는 "다양한 솔루션 중 AI 기반의 솔루션들에 대한 반응이 두드러졌고, 실제 판매자 성과로 이어진 케이스도 있다"면서도 "다만, SME와 만나보니 아직 많은 분들이 AI 솔루션에 대한 장벽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대표는 "AI 솔루션에 대한 장벽을 허물기 위해 일정 기간 무료 이용권으로 솔루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SME의 솔루션 첫 진입을 돕는 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쇼핑검색을 담당하는 박준효 기획자는 네이버만의 브랜드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네이버쇼핑에서는 앰배서더 활동과 데이터를 통해 SME들이 각 성장 단계별로 브랜딩 자산 구축, 플랫폼 역량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해 최근 시작한 '브랜드 런처'에 이어 플랫폼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브랜드 부스터'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여러 부서의 의견과 관점을 청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꽃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최 대표는 "네이버는 그동안 SME의 온보딩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면 이제는 스케일업에 집중할 차례"라며 "SME가 매출을 키우고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솔루션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스토어, 스마트플레이스 외에도 클라우드, 협업 툴을 이용하는 SME 클라이언트 등 좀 더 다양한 접점들을 살펴야 '프로젝트 꽃'도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롯데, 하와이 산불 10만달러 성금

롯데그룹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하와이에 성금 10만 달러를 기부한다.

17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하와이 자선단체(Friends of Hawaii)를 통해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긴급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2012년부터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인 '롯데챔피언십'으로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하와이 내 기초 생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돕기 위해 총 33만 달러를 기부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출범 후 첫 임금교섭 마무리한 한화오션 노사
"신뢰·협력 바탕 지속 가능한 회사로 거듭날 것"

한화오션이 출범 후 첫 노사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화오션 노사는 17일 2023년 임금교섭 타결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한화오션 권혁웅〈앞줄 왼쪽 두 번째〉 대표이사와 정상헌〈세 번째〉 지회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한화오션 노사는 현재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공감하고, 늘어나는 일감과 지연된 생산공정을 조기에 만회하기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지난달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이번 타결은 한화오션 출범 후 첫 교섭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하기휴가 전 타결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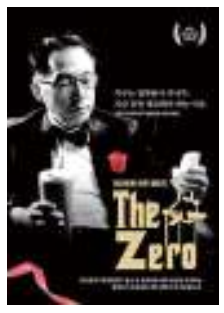
권혁웅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한화오션 출범 초부터 지속되어 온 노사상생의 정신으로 동종업계에서 가장 먼저 타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노사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하반기 경영실적 달성과 함께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지속 가능한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사진제공 한화오션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환경부의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중견련은 이호준 상근부회장의 '챌린지' 실천 약속과 포스터〈사진〉를 중견련 공식 페이스북 등에 17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는 각계의 다짐을 SNS에 공유하는 환경부 주관 실천 캠페인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챌린지'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영화 '대부' 포스터를 차용해 포스터를 제작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서 환경 문제에 대한 무거운 책무감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선도하고, 일상 속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다음 주자로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지목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사진제공 중견기업연합회

이승철 SK오션플랜트 대표, 애널 초청 첫 실적간담회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시장 압도적 1위 도약"

이승철〈사진〉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실적 간담회를 주관하며 기업가치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SK에코플랜트의 해상풍력 전문 자회사 SK오션플랜트는 16일 한병화 연구원 등 애널리스트 20여 명을 서울 유진투자증권 본사에 초청해 '2023년 상반기 실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 실적 간담회에 참석했다. 회사의 경영정책과 방향성을 CEO의 목소리로 전달해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신뢰를 쌓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올해는 대만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인 확장에 들어가는 시점으로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수주 랠리를 이어 갈 것"이라며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시장에서 압도적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K오션플랜트는 설립 이후 최대 반기 매출과 최대 반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14일 공시한 2023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의 2023년 상반기 매출은 47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3405억 원 대비 1371억 원(40.3%) 증가했다. 영업이익 역시 4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375억 원 대비 112억 원(29.9%) 증가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사진제공 SK오션플랜트

서브프라임 사태 때 떼돈 번 '빅쇼트' 마이클 버리
다시 한번 '뉴욕증시 붕괴' 베팅했다

포트폴리오 90% 주가 하락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공매도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투자자이자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사진〉가 다시 한번 뉴욕증시 붕괴에 16억 달러(약 2조 원) 넘는 거액을 베팅했다고 CNN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버리가 소유한 시온자산운용은 S&P500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8억6600만 달러,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엔 7억3900만 달러 상당의 풋옵션을 매수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한 금액은 전체 포트폴리오 자금의 90%를 웃돈다. 버리는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판단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베팅한 것으로 보인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로 버트 기요사키는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워런 버핏과 마이클 버리는 주식이 폭락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는 2분기 주식 80억 달러어치를 순매도하고 자사주 매입을 미뤘다. 그 결과 보유현금은 1473억77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에 가까워졌다. 고대영 기자 kodae0@

에이스손해보험 모재경 사장 선임

처브그룹은 에이스손해보험 신임 사장에 모재경〈사진〉 기업보험본부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모재경 신임 사장은 금융업계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로 2014년 에이스손해보험에 합류해 최근까지 기업보험본부, 손해사정본부, 대리점채널사업부 등의 총괄 부사장을 역임했다. 에이스손해보험 합류 전에는 10년간 AIG손해보험의 기업보험본부 총괄 전무를 맡았으며,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도이치뱅크 글로벌뱅킹부문 매니저직을 수행한 바 있다. 정상원 기자 jsw@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장 강도성 ◇과장급 전보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윤두희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이주식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 안영훈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주거복지지원과장 김도곤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윤덕기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김동현 △금융공공데이터팀장 김석환

부음

포니 개발 이끈 신현동 前 현대차 연구소장

국산 차 고유 모델 1호인 '포니' 개발을 이끌고, 독자 엔진을 만들자고 주장한 신현동 전 현대자동차 중앙연구소장(전 유진전장회장)이 17일 오전 3시10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4세.

1929년 12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구농림학교와 육군병기학교를 나온 뒤 10여년간 육사 병기공학과 교수로 일했다. 미 육사의 자동차 교재를 번역하면서 한국에 자동차 이론을 도입했다. 1960년대 말 현대자동차로 옮긴 뒤 승진을 거듭해 1970년대 초 임원(기술 담당 이사)이 됐다. 현대가 국산 차 개발에 착수한 것은 1973년. 당시 정부가 '고유 모델 자동차 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하는데 발맞춰 독자적인 자동차 생산을 결정하고 기획실을 부활시켰을 때 프로젝트 책임을 맡았다.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시제품을 선보인 데 이어 1976년 1월 포니 출시를 이끌었다.

유족은 부인 배순남 씨와 사이에 3남1녀로 신영철(미국 퍼듀대 석좌교수)·신영혜·신경철(전 유진로봇 회장)·신기철(전 유진전장 대표) 씨와 며느리 김윤경·현은자(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육세라 씨, 사위 장욱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9일 오전 4시40분. 02-3010-2000

▲**오맹선**(전 중원건설 대표) 씨 별세, **이혜순**씨 남편상, **오경희**(백석대 어문학부 교수)·**진수**(전 SK건설 전문위원)·**정훈**(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경진** 씨 부친상, **안창균**(전 SBS 데이터정보팀장)·**문세연**(건창기술단 상무) 씨 장인상 = 1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02-2227-7547

문화의 窓

서정남
영화평론가·계명대 교수

〈영화 '라쇼몽'이 던지는 메시지〉

우리는 열린사회를 향하고 있나?

우리는 어떤 사건의 본질(실체·fact)과 거기 연루돼 있는 이해 당사자들 각자의 양심이나 진실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종종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하곤 한다. 그래서 국가·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의 경우라면 더더욱 공권력의 엄정한 작동, 그리고 언론의 철저한 객관성 유지와 감시

자 역할이 중요하다. 대체 인간이란 무엇이고 탐욕은 어디까지인가?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영화 '라쇼몽(羅生門)'(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1950)을 다시 환기하고자 한다.

이 영화의 원작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단편소설 '라쇼몽'(1915)과 '덤불 속'(1921)이다. 라쇼몽(羅生門)은 일본 헤이안 시대 수도였던 교토의 성문 이름이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원작들의 의도, 정서와 주제를 지혜롭게 계승하면서 하나로 통합해 한 층 더 명료하고 고양

된 서사를 완성해냈다. 1951년 제15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과 제24회 아카데미상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며, 패전으로 구겨진 일본의 문화적 자존심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화 속 사건의 본질은 한 문장으로 압축될 정도로 너무나 간단명료하다. '사무라이와 아내가 산길을 가다가 산적을 만나게 됐으며, 산적은 사무라이의 아내를 겁탈했고, 사무라이는 죽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무라이의 죽음이 자살인가 타살인가를 두고, 사건의 세 당사자와 한 명의 목격자 진술이 모두 다르다는 데 있다. 인물들 각자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부분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과 위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고 윤색하기 위해, 사법적 징벌이나 곤란한 상황 모면을 위해,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상황을 조작하거나 무엇인가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감춘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각자의 진실'이다.

인물들의 각기 다른 입장, 즉 서로 다른 양심과 아집은 세상 모든 논란과 다툼의 근원이고 핵심이다. 영화는 결국 사무라이의 죽음이라는 핵심 사건의 실체(자살·타살)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생히 통찰하고 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 정직해질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윤색을 한다.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기주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악의 핵심이다."

인간은 정녕 구제불능이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영화의 엔딩에서는 유일한 대안을 제시한다. 역설적이게도 그 방법은 인간애정과 신뢰에 있음을 설파한다. 아기를 안고 걸어가는 나무꾼의 밝은 표정과 옅은 미소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개과천선한 인간의 선한 의지 회복으로 읽어내지 않는다면 너무 슬프고 비참하지 않겠는가.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는 온갖 첨예한 대립과 갈등, 이해 충돌을 보면서 자주 드는 생각은 '우리는 이전보다 무엇 하나라도 나아지고 있는가, 우리는 투명하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다. 사회구성원 각자의 서로 다른 양심과 가치관과 아집을 두루 관통해 평정할 만한 교양과 보편 상식의 획득, 역지사지의 성찰에 이르는 길은 이렇게도 멀고 험난하다.

그 역에 가고 싶다

조연에서 주연된 '금릉역'

금릉역은 2004년 10월 경의선 임시승강장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 금촌역의 혼잡도를 해소하고, 인근의 택지개발로 대단위 상가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2007년 10월 1일 무배치간이역으로 승격되었으며, 2009년 수도권 전철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임시역사를 거쳐 2011년에 현재의 역사로 이전하였다. 작은 임시승강장으로 시작했지만, 주요 관공서 및 주거지역, 상업지역 가까이 자리하고 있어 인근 주요역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성장, 오늘날에는 파주시의 대표 역사로 자리하게 되었다.

금릉역은 실제 금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미 금촌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금릉동의 지명을 따라 붙여졌다. 금릉역의 역명이 유래한 금릉 일대의 마을은 본래 교하군 현내면 지역으로 쇠 또는 금이 묻혀있다 하여 쇠자, 쇠재, 금성이라 불리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금릉리라 부르게 되었다.

자료=국가철도공단 '한국의 철도역'

이슈&인물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쓴소리' 정 중 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순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직원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경영자에게 바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율적 규범을 통한 내부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중호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CEO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17개 은행장들을 불러모아 행장이 직접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서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예고한 셈이다.

정중호 소장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사고에 대해 CEO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내부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규제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이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사 CEO 책임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CEO 내부통제 처벌 제한둬야…자율적 규범도 중요

정 소장은 "한국은 2017년부터 '지배구조법'이 시행됐고, 지배구조법에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이 제시돼 있어 이미 은행 자체에 내부통제를 맡기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면서 "중요한 것은 직원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경영자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금융회사가 완벽하게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직원 개인의 행위 때문에 CEO가 즉시 사임한다면 금융사 운영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것이다.

그는 "내부 통제제도가 발전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금융사의 CEO 또는 임원이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에게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적 규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가 언급했듯이 내부통제가 조직문화로 정착되려면 임직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면서 "내부통제를 위해서는 자율적 규범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통화긴축 파급효과' 주목…기준금리 동결기조 '지속'

하반기 한국 경제에서 주목할 것은 통화긴축의 파급효과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3%로 0.2%포인트(p) 낮췄다. 연구소는 하반기에는 완만한 민간소비 회복 속에 반도체 업황과 중국의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소장은 "향후 경제전망과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적해 있고 예상보다 연준의 긴축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통화긴축의 파급효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경기가 더디게 개선되거나, 중국 경제 회복이 지연될 경우 경기 반등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동결 결정을

금융사고에 CEO 직접책임 '위험'
부동산PF, 금융권 최대 불안요소
가계부채 위험수위…적극 대처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 소장은 미국 연준이 인하 사이클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국내는 기본적으로 금리 동결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라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시장이 재차 상승압력이 부각되면 오히려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긴축적인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파이낸싱(PF) 부실화, 가계부채 증가, 코로나19 상환유예 종료 등 하반기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악재 중 단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요인으로는 부동산PF를 꼽았다.

정 소장은 "3가지 모두 뇌관으로 불릴 만한 항목이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코로나19 상환유예 종료는 가계부문의 상환속도 조절 등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PF는 주택시장 이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상품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금리 하락과 투자 심리 회복 전까지 선순환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대 문제는 부동산PF…국내 가계부채도 '위험수위'

정부가 부동산PF 부실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부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증권, 저축은행, 캐피털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상호금융업권에서도 새마을금고 부실화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그는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 투자되는 브리지론, 중소형 금융기관과 중소건설사가 많이 참여하는 물류와 지식산업센터, 지방아파트 등 취약한 영역을 대상으로 부실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소장은 국내 가계부채의 규모나 증가속도, 구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4월 이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부분은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1068조 원으로 전월(1062조 원)과 비교해 6조 원 증가했다.

그는 "전세보증금과 같이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부채 또한 실질적으로 가계부채 범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가계 금융자산이 급증하면서 부채 상환 부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가계 분위별 자산과 부채 구성의 미스매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채 감축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논현로

구자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많은 규정들은 사고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에 '냄새가 나는 물질'(부취제)을 첨가해 가스가 유출되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193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가스유출 폭발 사고 이후 일반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 관련 규제는 건물에 회전문이 있는 경우 다른 형태의 문도 함께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등의 통행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 화재 사건에서 대피가 어려웠던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의 징계 규정에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오래된 회사들은 징계사유를 수십여 개 나열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한 규정이 없어 비위행위를 징계하지 못했던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있겠지만, 모든 실무나 제도는 소를 잃을 때마다 외양간을 조금씩 고치면서 발전해 온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법률 세계에서는 약간 다른 관점의 질문이 제기된다. 즉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쳤다는 사실은 외양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따로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가스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가스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부취제를 넣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부취제를 넣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과실'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징계의 경우에도 과거 규정상 징계사유가 모호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규정을 조금 더 분명하게 개정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기존 허점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는지 걱정하게 된다.

사고뒤 개선…과실인정하는 것?
모든 제도가 사후개선으로 발전
늦게라도 오류 고치는 게 '정도'

소송 상대방이라면 당연히 국가나 기업의 개선조치가 기존 업무 수행의 하자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다. 적어도 그러한 개선조치가 가능했다는 점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하급심 판결은 납품업자가 기존 제품의 하자를 발견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 사안에서, 이러한 조치는 '그 이전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개선조치를 취하는 국가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관점이 부당하게 생각되기도 한다.

첫째,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모든 문제의 가능성을 미리 예상할 수는 없는데, 사후적인 관점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과거에도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때가 있다.

둘째, 반드시 개선조치를 하자나 과실의 증거로 삼아야만 할 현실적 필요도 별로 없다. 종래의 업무에 하자나 과실이 있었는지는 그 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 이후의 개선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단지 판단이나 이유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기도 한다.

셋째, 정책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해서 과실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아무런 개선 방안을 추진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연방증거규칙은 과거의 어떠한 사고로 인해 발생했던 부상이나 피해와 관련해 앞으로 그러한 부상이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 그러한 '사후구제조치'는 행위의 과실이나 제품의 하자 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과 같은 증거 규칙을 두는 것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 법은 법관의 '자유심증'을 원칙으로 삼아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자격)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거의 두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적어도 법원에서 섣불리 사후적 관점만을 들어 개선조치가 곧 과실의 증거라고 판단하는 일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오노레 드 발자크 명언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요, 한 권의 책이다.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소설가로 사실주의의 선구자다. 나폴레옹 숭배자였던 그는 나폴레옹이 칼로 이루지 못한 것을 펜으로 이루겠다는 염원으로 작품을 썼다. 그는 모두 70편에 등장인물이 2000명에 이르는 종합작품 '인간희극'을 발표했다. 그가 가공이라고는 한 내용이지만, '하나의 완전한 사회'를 표현하는 것이며, 19세기 부르주아 사회에 관한 풍부하고 상세한 지식을 제공해 준다는 평을 듣는다. 대표작은 '외제니 그랑데' '절대의 탐구' '고리오 영감' '골짜기의 백합' '농민' 등.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799~1850.

☆ 고사성어 / 박면피(剝面皮)

얼굴 가죽을 벗긴다는 말이다. 뻔뻔한 사람에게 창피를 주어 면목 없게 하는 것을 이른다. 배씨어림(裵氏語林)에 나온다. 오(吳)나라 왕 손호(孫皓)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얼굴 가죽을 벗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으며, 신하들이 간언하면 신체를 찢는 거열형(車裂刑)에 처하기도 하고 뜻을 거역하는 궁녀의 목을 베어서 흐르는 물에 던져버리는 등 백성을 괴롭히는 정치를 일삼았다. 진(秦)나라에 항복한 뒤 뤄양으로 끌려온 그에게 진나라의 가충(賈充)이 사람의 얼굴 가죽을 벗긴 까닭을 묻자, 두꺼운 얼굴 가죽이 미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남의 체면을 깎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낯가죽이 두껍고 뻔뻔한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시사상식 / 잡노마드족

직업(job)을 따라 유랑하는 유목민(nomad)이라는 뜻. 자신이 원하는 것과 능력에 따라 직장, 직종, 지역 등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일을 좇아 이곳저곳 직장을 옮겨 다니는 일종의 '사회적 부작용 현상'으로 이해된다.

☆ 유머 / 캐나다 전 총리 장 크레티앙

1993년 이래 세 번 총리를 지낸 인물. 그는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먹었고, 안면 근육 마비로 입이 비뚤어져 발음이 어눌했다. 그가 총리 선거 유세를 할 때 한 사람이 "총리가 언어장애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고 외쳤다. 그의 단호한 대답. "나는 말을 잘 못 하므로 거짓말도 못 합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사설

中 먹구름, '제2 리먼' 피해 없도록 경계와 대비를

국내 주식시장이 어제 크게 출렁거렸다.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2482.06까지 추락했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2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5월 17일 이후 3개월 만이다. 미국의 채권 금리 급등도 영향을 미쳤지만, 더 큰 불안 요인은 중국의 경제 먹구름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중국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중진국 함정,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 그림자금융, 누증된 기업부채, 가계부채 급증,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지방정부 재정 부실 등 7가지 그림자를 경고의 이유로 제시했다. 국제금융센터도 중국 민간기업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을 경계했다.

물증은 곳곳에 널려 있다. 중국 부동산 매출 1위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이 디폴트 위기에 빠진 데 이어, 또 다른 부동산 업체이자 국유 기업인 위안양도 채무 상환에 실패했다. 중국 최대 부동산 자산신탁사인 중룽신탁도 최대 6000억 위안(약 110조 원)의 지급 중단 위기에 빠졌다. 중룽신탁 대주주인 중즈그룹이 어제 유동성 위기를 자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줄초상 분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물경제 부진도 심각하다. 7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에 그쳐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7월 소비자물가는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0.3%)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번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중국 당국이 매월 발표하던 실업률 발표를 중단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청년 일자리 여건이 중국 정부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쁘다는 뜻이다. 통계 발표 중단으로 국가 투명성에 대한 신뢰마저 망가뜨리는 결과를 빚었으니 설상가상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정책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2.65%에서 2.50%로 0.15%포인트 깜짝 인하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어제 기준 인민은행 고시환율은 7.2076위안을 기록해 한 달 만에 다시 7.2위안을 돌파했고, 역외환율인 홍콩 위안(CNH)환율도 장중 7.35위안에 육박하면서 2010년 홍콩 역외 시장 개설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7.37위안(장중 기준)을 넘보기도 했다. 현재 중국 부동산시장은 헝다 디폴트 사태가 있었던 2년 전보다 더 심각하다는 평가다.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우리 기업들이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전략적 거점이다. 그렇더라도 금융·부동산 불안의 전이는 막아야 한다. 중국발 '리먼 사태'가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중국의 먹구름이 서해를 넘어 한반도를 덮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등 철저한 경계와 대비에 나서야 한다. 디리스킹(De-risking) 전략도 필요하다. 중국 의존도를 어찌 낮추느냐는 문제는 국가 명운을 걸고 조속히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우선 초격차 유지와 규제개혁, 수출 다변화 등에 총력을 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기자수첩

정대한
정치경제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준비 부실' 논란 속에 막을 내리자 책임 추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준비와 운영 모두 총체적인 문제를 노출한 만큼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개최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으로 선정됐다. 이후 6년 동안 잼버리 대회에 투입된 총 국가 예산은 1171억 원이다.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의 총사업비인 395억 원보다도 3배 이상의 예산을 썼음에도 시설 부실 등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선 주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와 대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책임론' 공방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다툼인 셈이다.

우선, 주관 지자체인 전북도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잼버리가 개최된 새만금 부지는 지난해 말 매립 공사를 마치고도 집중호우에 여러 차례 침수된 적이 있으며, 애초부터 농업용지여서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야영장 부지를 새만금으로 고집해 결국 관철했으며, 여당에서는 새만금 부지 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속도를 붙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회 주무부처인 여가부 또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가부는 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정부 부처 자격으로 조직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예산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

감사원이 지난 16일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주관 지자체인 전북도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잼버리는 분명 '준비 부실'로 인해 파행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이 실추됐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다만, 잼버리 파행은 유치 과정에서부터 공사, 운영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서로의 책임이 더 크다며 공방을 벌이기보다도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잼버리 파행은 어느 누군가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책임이다.

vishalist@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덕헌 | 주필 이승현 |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 홈페이지 www.etoday.co.kr |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 팩스 (02)784-1003 | 광고문의 (02)799-2668 |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Galaxy Z Flip5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플렉스 모드가 동작하는 각도는 75°-115°이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완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